

23일 Market Index			
코스피	2424.48	코스닥	812.19
	(+7.52)		(-1.24)
금리 (한국예 9년)	3.206	환율	1278.30
	(-0.078)		(-29.40)

[정치]
‘양곡관리법’
본회의 통과
尹 거부권 주목
08



구독료: 월 20,000원 / 1부 1,000원 등록번호 서울 가50111 독자센터 (02)721-9841

매일 아침, 나를 키우는 메트로

2023년 3월 24일 금요일

m-커버스토리

파우치형·원형·각형 등 ‘전기車용 표준화’ 전쟁

배터리 진화, 어디까지

경기 침체가 세계를 덮치고 있다. 고물가·고금리의 기세가 꺾일 줄 모르고 소비 위축은 경기를 얼어 붙게 만들었다. 하지만 이런 환경 속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질주하는 업계가 있으니 바로 ‘배터리’다.

세계 각국 정부가 기후위기를 인식하고 친환경 정책과 보조금 정책을 세우면서 전기차 시장이 성장한 것이 배터리 시장 성장의 주요 배경이다.

국내 배터리 3사로 불리는 LG에너지솔루션·삼성SDI·SK온의 1분기 합산 매출만 해도 16조 원을 넘을 전망이다. 올 한해 누계 추정치는 약 70조원의 매출을 올릴 거라는 관측이 나올 정도다.

23일 시장조사업체 SNE리서치에 따르면 2022년 상반기 전기차용 배터리 시장은 전년 동기 대비 76% 성장한 202GWh를 기록했다. 또한 원자재 수급난에도 28개월째 꾸준한 성장세를 보이는 중이다.

배터리 3社 연매출 70조 관측
전기차용 시장 전년비 76% ↑

크기·공정난이도·생산비용 등
형태따라 장·단점도 각기 달라

◆ “모양새에 따라 각기 다른 매력”
전기차의 핵심은 배터리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전기차의 속도와 운행 가능 거리를 결정하고 혹여나 터질 사고에 대비해 안전성도 중요한 이슈가 때문이다.

배터리는 크게 양극재, 음극재, 분리막, 전해액(전해질) 등으로 구성돼 있으며 이를 어떻게 담아내느냐에 따라 배터리는 ▲원통형 ▲파우치형 ▲각형으로 분리된다. 배터리는 형태에 따라 각기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으며 완성차 업체들의 ‘러브콜’을 받고 있다.

먼저 ‘원통형 배터리’는 가장 오래된 형태이자 일상생활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건전지와 같은 모양이다. 대형 배터리 제조사들이 표준화된 규격에 맞는 설비를 갖추고 있어 다른 형태의 배터리들보다 많은 양



LG에너지솔루션의 파우치형 배터리, 삼성SDI의 원통형 배터리, SK온의 각형배터리.

을 빠르게 생산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가장 전통적인 형태로 생산비용도 저렴하고 내구성이 좋으며, 부피당 에너지 밀도도 높다. 특히나 안정적인 수급으로 완성차 시장을 공략해 왔다.

하지만 전기차 장착을 위해서는 원통형 배터리를 하나로 묶어야 하는데 그 비용이 많이 들어 배터리를 만들기 위한 배터리 시스템 구축비용이 많이 든다는 단점도 있다.

이어 ‘파우치형 배터리’는 전극을 셀과우치로 감싼 모양이다. 배터리를 둘러싼 외관이 얇아 다른 형태의 배터리보다 가볍고, 다양한 형태로 만들 수 있으며 높은 에너지 밀도로 장거리 주행에 적합하다. 열 관리도 잘 되는 편에 속하지만 대량 생산이 어렵고 공정 난이도가 높아 생산비용도 비싸다.

파우치형 배터리는 여전히 다양한 IT 기기에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었는데, 전자기동차에도 탑재되고 있어 활용 분야가 점점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는 배터리 형태다. 게다가 장점으로 꼽힌 외관 얇기는 외부 충격에 약하다는 단점을 야기했다. 결국 모듈이나 팩으로 구성할 경우 강도 보완 기술이 필요해 상대적으로 비용이 높아지게 된다. <6면에 계속>

/허정윤 기자 zelkova@metroseoul.co.kr

“실물자산 → 금융자산 전환 등 수단 다각화로 노후생활 준비”

2023 100세 플러스 포럼

자산 부동산 쏠림, 불안요인 작용
고금리 시대 가계부채 증대 우려

김영익 서강대 경영대학원 교수
“저성장 국면 저금리 추세 대비
대출은 변동금리, 예금은 고정”

“100세 시대를 맞이하는 우리 국민들의 가장 큰 고민거리는 ‘노후대비’다. 금융불안으로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는 만큼 노후대비 수단을 다각화하고 위험을 분산·관리해 나가야 한다.”

김주현 금융위원회 위원장은 지난 22일 메트로신문(메트로경제) 주최로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2023 100세 플러스 포럼’ 축사에서 “우리나라 은퇴 연령층의 상대적 빈곤율이 주요국과 상당히 높은 수준”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이날 축사는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이 대독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따르면 2020년 우리나라의 만 65세 이상 노인인구의 상대적 빈곤율은 40.4%로 미국(21.5%), 영국(13.1%), 핀란드(6.9%)와 비교해 높다. 문제는 이러한 빈곤율에도 불구하고, 노후준비의 대부분이 사적연금보다 국민연금에 의존



김영익 서강대 경영대학원 교수가 22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메트로경제 주최로 열린 ‘2023 100세 플러스 포럼’에 참석해 기조강연 하고 있다.

/손진영기자 son@

하고 있다는 점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주된 노후준비 방법은 국민연금이 55.1%로 가장 많았고, 예·적금 17.7%, 사적연금 7% 순이었다.

자산의 부동산 쏠림도 불안요인으로 작용한다. 우리나라의 가계자산 가운데 비금융자산의 비중은 64.4%며 이중 부동산은 94.3%를 차지한다. 고금리 추세가 이어질 경우 가계부채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분석이다.

김영익 서강대 경영대학원 교수는 ‘글로벌 경제와 한국경제 전망’에서 가계 자산의 재조정 과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올해 우리나라의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1%대로 전망하

는데, 저성장 국면은 올해 한해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장기화될 가능성이 높다”며 “금리도 정점의 시기를 지나는 만큼 노후준비는 저금리 추세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김 교수는 노후준비를 위해 ▲근로 소득을 최대한 오래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저금리 추세에 대비해 은행대출은 변동금리 ▲예·적금은 지금 높아진 금리가 유지될 수 있도록 고정금리를 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또 실물자산을 금융자산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연령대별 가계자산 비중을 살펴보면 50~60세 이상의 경우 거주주택은 70~80%를 차지하는 반면 저축액은 10%대에 불과하다. 거주하는 주택을 주택연금으로 전환해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준비해 나가야 한다는 설명이다.

염승환 이베스트투자증권 이사는 “올해 1월 경기추세가 저점 부근에 진입한 만큼 증시 변동성이 진정돼 계단식 상승이 이어질 것”이라며 “코스피가 2400선 밑으로 떨어졌을 때 주식을 분할매수해 비중을 확대하라”고 했다.

호지영 우리은행 세무사는 양도소득세 부담으로 주택을 팔 수 없던 다주택자는 지금이 세금걱정 없이 양도할 수 있는 시기라고 강조했다.

<2면에 계속>

/나유리 기자 yul115@metroseoul.co.kr

‘검수완박법’ 유지… 국힘 무효청구 ‘기각’

현재 권한쟁의심판 최종 결론

“한동훈 장관 청구인 자격 없어”

검찰의 수사권을 축소하는 내용의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의 입법 과정에서 두 법안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가결한 것은 국민의힘 의원들의 심의·표결권 침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검사들이 제기한 권한쟁의 심판은 각하 결정이 내려졌다. 한 장관은 청구인 자격이 없고, 검사들은 헌법상 권해를 침해받지 않았다는 것이 현재 결정의 요지다.

현재는 23일 서울 종로구 대심판청에서 유상범·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이 국회의장과 국회 법사위원장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 심판 청구를 재판관 5대4

의견으로 법사위원장 부분을 일부 인용했다. 다만 국회의장에 대한 부분은 기각했다. 두 법안이 본회의에서 가결된 것은 정당하다고 봤다는 뜻이다. 무효 확인 청구도 기각했다.

국회는 지난해 4월30일 검찰청법, 5월3일 형사소송법을 본회의에서 가결시켰다. 문재인 전 대통령도 5월3일 국무회의를 열고 두 법안 공포안을 심의·의결했다. 두 법안은 지난해 9월10일부터 시행됐다. 문재인 정부 검찰개혁의 ‘완성판’ 법안으로 평가 받았다.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으로 불리는 개정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은 검사의 수사권을 축소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검찰은 수사권 조정 이후 6대 범죄 수사를 맡았지만, 개정 법

률에 따라 부패·경제범죄 수사만 담당하게 됐다.

두 법의 시행에 따라 수사 검사와 기소 검사도 분리됐다. 경찰이 불송치하기로 결정하면, 고발인은 이의제기를 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도 법안에 담겼다.

유·전 의원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회의에 절차적 하자가 있고, 이후 본회의까지 절차적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태로 법안이 가결됐다고 주장했다. 이로 인해 심의·표결권이 침해됐기 때문에 법안 가결이 무효라고 주장했다.

현재는 같은 날 한 장관과 검사 6명이 국회를 상대로 제기한 권한쟁의 심판 사건의 선고기일을 열고 재판관 5대4 의견으로 각하 결정했다.

/박태홍 기자 pth7285@

바스타비 TV와 함께하는 메트로 뉴스



▲ 與 박대출 신임 정책위의장 “1호 정책 농부 되겠다”
▲ 국토위, TK신공항특별법 ‘여야 합의’ 의결… 심상정 반대

/사진 뉴시스

▲ ‘국회의장 공관 100m내 집회금지’ 헌법 불합치
▲尹정부 첫 재외공관장회의 27~31일… 키워드는 ‘세일즈 외교’



▲韓, 5년만에 유엔인권이사회 ‘北인권결의안’ 공동제안 복귀
▲ 국토위, TK신공항특별법 ‘여야 합의’ 의결… 심상정 반대

/사진 뉴시스

“국민연금·부동산 넘어 사적연금 등으로 미래 대비해야”

축사

김 주 현 금융위원장

김소영 부위원장 대독

“100세시대 가장 큰 고민거리 ‘노후’ 부동산 연계 부채 불안요소 꼽혀 연금·투자상품 확대 인프라 만들 것”

김주현 금융위원회 위원장은 “불확실성에 대해 적극 대응이 필요하다”며 “국민연금 부동산 뿐만 아니라 사적 연금과 금융자산 등을 통해 노후 대비 수단을 다각화하고, 위험을 분산 관리하는 방법에도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 22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메트로신문(메트로경제) 주최로 열린 ‘2023 100세 플러스포럼’에서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이 김주현 금융위원장의 축사를 대독했다.

김 위원장은 “100세 시대를 맞이하는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이 지난 22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 2층 국제회의실(컨벤션홀)에서 메트로신문(메트로경제) 주최로 열린 ‘2023 100세 플러스 포럼 시즌1’에서 김주현 금융위원장의 축사를 대독하고 있다. /손진영 기자 son@

우리 국민들의 가장 큰 고민거리는 당연히 노후 대비일 것”이라며 “경제협력 개발기구(OECD)중 우리나라 은퇴 연령층의 상대적 빈곤률은 주요국과 비교해 상당히 높은 수준이다”라고 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철저한 노후 준

비가 필요하지만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부족한 현황으로 불안한 부분이 많다.

김 위원장은 “우리나라는 높은 국민연금 의존도와 부동산 쏠림, 불확실한 대내외 경제 여건 등이 발목을 잡고 있다”고 말했다.

통계청의 2021년 노후 준비 방법 조사 결과에 따르면 국민연금 응답률이 약 60%인 반면 사적 연금의 응답률은 10분의 1 수준인 6%에 불과하다.

또한 가계자산 중 비금융자산의 비중이 60%가 넘고 비금융자산의 90% 이상은 부동산이기 때문에 부동산 쏠림 현상이 유동성 측면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김 위원장은 “부동산과 연계된 가계 부채 수준이 높다는 점이 불안요소로 꼽히고 있다”며 “이를 개선하기 위해 당국도 관심이 쏠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직면한 대내외 경제 여건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대내적으로는 인구 감소 고령화 생산성 정체 등이 우리 경제의 잠재 성장 동력을 위협하고 있고 대외적으로는 미중 패권경쟁 지정학적 리스크 금융 불안 등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김 위원장은 “국민과 정부와 금융위가 모두가 경각심을 가지고 미래를 준비해 나가야 할 것”이라며 “국민들은 소

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새로운 불확실성에 대해 적극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국민연금과 부동산뿐만 아니라 사적연금과 금융자산 등을 통해 노후 대비 수단을 다각화하고 위험을 분산 관리하는 방법에도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며 “정부 역시 국민들의 니즈에 부합하는 다양한 연금 및 금융투자 상품들이 확대될 수 있도록 제도와 인프라를 만들어 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국민들이 3종 연금 체제를 통해 노후 대비를 두텁게 할 수 있도록 연금저축 펀드에 고정 방식 투자 대상을 확대했고, 퇴직연금에 디폴트 옵션을 도입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김 위원장은 “금융기관 역시 (노후준비 관련해) 큰 역할을 해주실 것으로 기대한다”며 “국민들의 든든한 노후 예비 파트너로서 금융상품 설계에 명품 대상 운동 등의 영역에서 여러분들이 쌓아온 전문성을 발휘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승용 기자 lsy2665@metroseoul.co.kr

“불확실성, 도약의 계기로 삼는 지혜 필요” “건강상태·수익 등 고려 국민연금 개시를”

개회사

이 장 규 메트로경제 대표이사

“엄지 린, 불확실성 극한으로 몰아 금융당국의 리더십, 빛 발할 순간”

세상은 다시 요동치고 있습니다. 코로나 발생에 이어 우크라이나전쟁, 미·중 갈등은 지구촌의 불확실성을 다시 높이고 있습니다. 미국 연준의 폭발적인 금리인상, 자이언트 스텝이 가져온 후폭풍은 실리콘밸리은행(SVB)에 이어 크레디트스위스(CS)은행까지 집어 삼켰습니다. 파장이 어디까지 이어갈지, 행여 15년전의 리먼브러더스 사태로까지 확산되는 건 아닌지 금융당국, 금융회사, 투자자들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돈이 가장 싫어하는 ‘불확실성’은 역설적으로 기술이 발전할수록,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속성을 가지고 있는 것



이장규 메트로경제 대표가 ‘2023 100세 플러스 포럼’에 참석해 개회사 하고 있다. /손진영 기자

같습니다. 은행으로 달려가서 돈을 빼는 ‘뱅크 런’ 대신 모바일뱅킹으로 즉각 대량인출하는 ‘엄지 린’은 불확실성의 속도를 극한으로 몰고 갑니다. 파급력과 파급속도가 과거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지구촌에서 가장 앞선 두 금융선진국, 미국과 스위스에서 발생한 유동성

위기는 글로벌 금융시스템의 허점을 적나라하게 드러냅니다. 그럼, 우리나라는 안전할까. 정말 그러하길 바랍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님을 비롯한 금융당국의 리더십이 빛을 발할 순간이고, 투자자들은 부하노동 하지 않고 차분히 사태를 파악해야 할 시점입니다.

역사적으로 위기는 큰 기회를 가져옵니다. 불확실성의 껍질을 벗겨내고 위기의 내면을 맛따드리면 나아갈 길을 짐작할 수 있을 겁니다. ‘바람이 강하게 불수록 하늘의 연은 더 높이 뜬다’는 격언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위기와 불확실성을 도약의 계기로, 체질강화의 디딤돌로 삼을 수 있는 용기와 지혜가 아닌가 싶습니다. 저명한 강사님들의 진단과 분석, 전망을 바탕으로, 이번 포럼이 불확실성의 공포를 이겨내고, 새로운 투자전략을 수립하는 기회의 시간이 되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구남영 기자 koogija_tea@

>> 1면 ‘실물자산—금융자산’서 계속

정부는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율 적용을 오는 2024년 5월 까지 유예했다. 기존에는 다주택자가 집을 팔 경우 2주택자는 양도세 기본세율(6~45%)에 20%포인트(p), 3주택자는 30%p를 더했다.

다주택자가 2년 이상 보유한 주택을 팔 때 양도세 기본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 시기에 주택을 팔아야 절세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증여시 부담부증여를 활용해 증여재산가액을 낮추는 방식도 소개했다. 부담부증여란 재산에 포함된 대출금이나 보증금 등 채무액도 넘겨받는 것을 말한다.

예컨대 전세를 끼고 증여하면, 증여자가 양도세를 일부부담하고, 수증자는 채무승계액 만큼 감소된 금액에 대해서만 증여세를 부담한다.

증여금액은 클수록 세금부담은 누진적으로 증가한다. 양도세로 납부하는

금액보다 증여세 감소액이 더 크기 때문에 절세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는 것. 특히 현재 양도세 중과가 한시적으로 유예되고 있어 절세효과가 더 크게 나타날 수 있다.

김동업 미래에셋투자자산운용센터 본부장은 국민연금 개시시기와 관련해 “자신의 건강상태, 수익률, 예상수명, 소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시기를 조절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예컨대 1964년생의 경우 국민연금을 정상적으로 63세에 수령할 수 있지만, 앞당겨 58세에 받을 수 있고, 늦춰 68세에 받을 수도 있다.

다만 수령시기를 앞당길 경우 연금은 1년당 6%씩 감소하고, 늦출 경우 7.2% 증가한다.

김 본부장은 “이외에도 주택연금 등을 통해 소득을 다변화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천하는 것이 중요한 만큼 꼼꼼히 노후에 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나유리 기자 yul115@

美 베이비스텝에… 한은, 금리 추가인상 압박 줄어

미국 기준금리 5.0%로 뛰어 파월 “필요하다면 금리 인상”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가 베이비스텝(기준금리 0.25%포인트 인상)을 단행했다. 이에 따라 미국의 기준금리는 기존 4.50~4.75%에서 4.75~5.0%로 뛰었다.

다만 연준은 이날 공개한 점도표에서 올해 말 기준금리 전망 중간 값을 5.1% 유지해 사실상 5월 예정된 다음회의에서 베이비스텝을 단행한 후 금리인상이 종결될 수 있음을 시사했다. 인플레이션에 무게를 두되 실리콘밸리은행(SVB) 사태로

B) 사태 이후 확산되는 은행 위기 여파를 지켜보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23일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이후 열린 기자회견에서 은행 위기여파를 고려해 동결할 생각은 없었는지 묻는 질문에 “FOMC 회의를 앞두고 동결도 고려했다”면서도 “물가안정을 위해 목표치(2%대)로 낮추는 것으로 신뢰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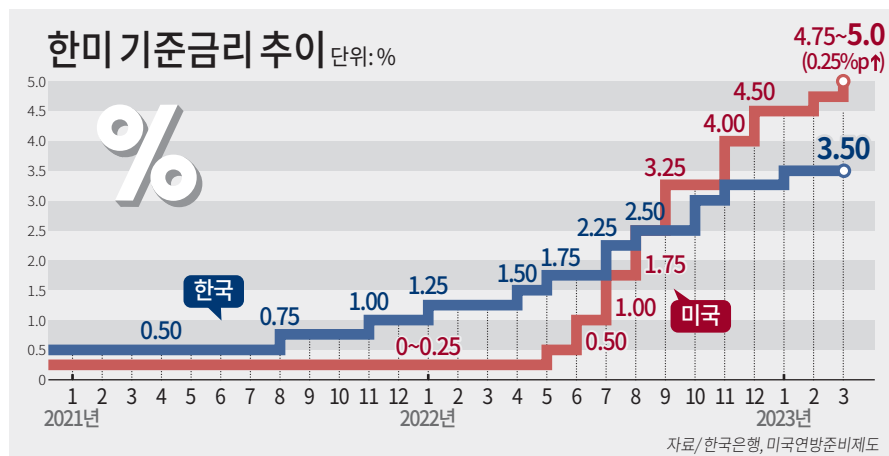
파월 의장은 “필요하다면 금리를 인상하겠다”며 “올해 금리인하를 예상하고 있다면 완전히 잘못된 것”이라고 못 박았다. 실리콘밸리은행(SVB) 사태로

인한 신용 여건과 인플레이션의 추이를 지켜본 뒤 금리인상이나 동결을 결정하겠다는 것이다.

FOMC 위원들이 향후 금리 인상 경로를 각자 ‘점’을 찍어 보여주는 점도표에 따르면 중간 값은 5.1% (5.0~5.25%)로 기존 전망과 같았다. 베이비스텝이 한 번 정도 남았다는 의미다.

한국은행도 기준금리 인상 여파를 지켜볼 여유가 주어졌다. 한국은행은 오는 4월 11일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기준금리를 결정한다.

통계청에 따르면 2월 소비자물가지수는 110.38로 1년 전과 비교해 4.8%



상승했다. 지난해 8월부터 이어진 5%대 물가가 4%대에 진입한 것이다.

또 지난 2월 유출된 외국인 채권투자 자금은 5억2000만 달러(6878억원)로 한달 전(52억9000만달러)과 비교해 크게 줄었

다. 한미 금리격차가 벌어졌음에도 자본 유출조짐이 없다는 분석이다. 다만 4월 한국은행이 동결을 결정하고, 연준이 한차례 금리를 0.25%p 인상하면 한미 금리격차는 1.75%p로 커진다. /나유리 기자

“달러가치 하락시 투자 기회… 예금·주식보다 채권 유리”

기조강연

김영익 서강대 교수

재테크 방식, 시대적 흐름 강조
내년까지 유통화·엔화 강세 예상
“채권, 시세차익·이자소득 한번에”

김영익 서강대 경영대학원 교수는 “시대의 흐름을 알면 개인도 부자가 될 수 있고 기업도 성장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지난 22일 메트로신문(메트로경제) 주최로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2023 100세플러스 포럼’ 강연에서 “세계 경제가 올해 어렵다”며 “부채 문제가 드러나고 붕괴되는 과정을 겪고 있어, 이를 기회로 활용해야 될 시기다”라며 이 같이 말했다.

이날 강연에서 그는 ▲세계 금융시장



지난 22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 2층 국제회의실(컨벤션홀)에서 메트로신문(메트로경제) 주최로 열린 ‘2023 100세 플러스 포럼 시즌1’에서 김영익 서강대 경영대학원 교수가 강연하고 있다. /손진영 기자 son@

위기 ▲달러가치 전망 ▲채권시장 전망 등을 중점적으로 이야기했다.

김 교수는 과거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와 코로나19, 최근 발생한 실리콘밸리은행(SVB) 파산까지 세계 금융시장을 강타한 사건이 있다고 소개했다.

김 교수는 “경제위기 당시 소비심리가 위축되면서 각국 중앙은행은 기준금리를 내리고 소비심리를 높였다”며 “경제상황은 좋아졌지만 정부의 지출이 늘어난 만큼 부채가 상승하면서 부실 성장을 이룬 것”이라고 해석했다.

이어 그는 “이런 부채로 인해 2021년 주가가 급락하게 된 것이고 세계경제가 지금까지 어려워진 것”이라며 “이 당시 세계경제는 6% 성장하면서 정부와 중앙은행이 돈을 많이 풀었다는 것이 명확해졌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올해 달러 가치가 하락하면 투자 기회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 교수는 “지난해는 달러 강세로 ‘킹달러’ 이야기까지 나오면서 원화가치가 많이 하락했다”면서 “올해와 내년에는 유통화 강세, 위안화 강세, 엔화 강세가 예상되고 달러는 내년까지 약세를 보일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최근 달러 가치가 잠깐 반등하고 있는데 2분기부

터 3차 하락 추세가 시작될 것”이라며 “국제통화기금(IMF)도 올해부터 2027년까지 세계 GDP에서 미국 비중 축소를 예상하고 있는데 이는 달러 가치가 장기적으로 하락한다는 의미다”라고 덧붙혔다.

김 교수는 “2분기 중후반으로 진입하면 달러화 대비 원화는 1200원대로 떨어질 것이고 장기적으로는 1100원까지 갈 수 있다”며 “현재 1300원이 넘는 상태지만 이는 일시적인 상승”이라고 진단했다.

또한 김 교수는 예금투자와 주식투자보다는 채권투자를 권고했다.

김 교수는 “작년 하반기부터 채권 투자를 많이 하라고 권유하고 있다”면서 “1년 전에 비해 채권가격은 10% 넘게 올라지만 1년 만기 예금 이자는 불과 4~5% 밖에 되지 않는다”고 했다.

또한 “주식투자의 경우 하락장이 지속되면서 수익률이 마이너스인 투자자들

이 대부분일 것”이라며 “가만히 있어도 10%가 오르는 채권을 투자하는 것이 수익면에서 이득이다”라고 강조했다.

채권은 금리가 떨어지면 언제든지 팔 수 있기 때문에 시세차익과 이자소득을 동시에 얻을 수 있다는 것이다.

김 교수는 “우리 가계 자산에서 채권이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2%에 불과하다”며 “채권투자에 관심이 있으면 단기 예금을 처분하고 장기예금을 가지고 있는 것을 추천한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우리 경제가 구조적으로 저성장 시대에 접어들었다는 것을 명심하고 금리 상승은 정점을 찍었기 때문에 경제 회복과 관련한 투자처를 찾아야 한다”며 “경제 성장이 낮아지고 물가 상승률이 낮아지면 금리는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명심하고 금리는 이제 하락 추세로 진입할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승용 기자 lsy2665@metroseoul.co.kr

“절세 키포인트 ‘취득시점’… 부동산 증여, 지금이 적기”

부동산 규제완화·세테크 전략

호지영 우리은행 세무사

정부 정책흐름, 세제개정 파악 강조
“1가구 1주택 비과세 요건 충족 따져야”

고금리와 고물가, 고환율 등 3고 위기에 부동산 시장의 침체가 지속되고 있다. 윤석열정부는 부동산 시장의 연착륙을 위해 다양한 규제 완화책을 내놓고 있다. 빠르게 진행되는 규제 완화로 시장의 하락폭 둔화가 예상되는 가운데 향후 부동산 절세 전략에도 이목이 쏠린다.

호지영 우리은행 자산관리컨설팅센터



호지영 우리은행 자산관리컨설팅센터 TAX컨설팅팀 세무사가 ‘2023 100세 플러스 포럼 시즌1’에서 강연하고 있다. /손진영 기자 son@

터 TAX컨설팅팀 세무사는 지난 22일 메트로신문(메트로경제) 주최로 서울 명동 은행회관 2층 국제회의실(컨벤션

홀)에서 열린 ‘2023 100세 플러스 포럼 시즌1’에서 부동산 시장의 방향을 결정하는 핵심 요소는 ‘부동산 정책’이라고 강조했다.

호지영 세무사는 “윤석열정부는 이례적으로 빠른 규제 완화 속도로 부동산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면서 “세제와 대출, 청약 등 다양한 규제 완화책으로 ‘주택시장의 연착륙’ 유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지난해 5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와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요건 완화 등을 시작으로 규제 완화 정책을 신속히 추진 중이다. 작년 12월에는 다주택자 취득세 중과 완화와 양도세 중과 유예기한 연장, 생활 안정 자금 및 임

차보증금 반환 등 규제를 완화했다. 지난 1월에는 서울 강남3구(강남·서초·송파)와 용산구를 제외한 서울 21개구가 규제지역에서 해제했고, 전매제한 완화와 실거주 의무 폐지 등을 결정했다.

호 세무사는 올해 주목해야 할 부동산 세제 개정사항에 대해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완화 ▲일시적 2주택 처분기한 2년→3년 연장 ▲다주택자 종합부동산세 중과 폐지 ▲다주택자 취득세 중과 완화 ▲단기 양도 및 분양권 등 양도소득세율 환원 등을 꼽았다.

호 세무사는 부동산 절세 전략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부동산 정책 흐름과 세제 개정 사항 등을 파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1가구 1주택 비과세 요건 충족이 절세의 핵심”이라면서 “거주요건은 ‘취득 시점에 조정대상지역 여부’에 따라 결정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 내에서는 2년 이상 보유와 2년 이상 거주가 요건이지만, 조정대상지역 외에서는 2년 이상 보유만 조건이기 때문에 미리 숙지하고 잘 활용해야 한다는 것.

호 세무사는 “절세의 기본인 세대본리의 경우 ‘실질적으로 생계를 달리 하는지’의 여부가 중요하다”면서 “양도소득세법상 ‘취득 시점’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도 절세의 키포인트”라고 강조했다. 이어 “부동산 증여는 지금이 적기라고 판단된다”면서 “전세 끼고 증여하는 ‘부담부증여’로 증여재산가액을 낮추고, 특수관계인 간의 ‘저가매매’를 활용해 거래하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덧붙였다.

/김대환 기자 kdh@

VIP 티타임



‘2023 100세 플러스 포럼’에 참석한 내빈들이 담소를 나누고 있다.

/손진영 기자 son@

SVB·CS사태, 에코프로 불공정거래 등 금융시장 현안 언급

지난 22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 국제회의실에서 열린 ‘2023 100세 플러스 포럼’은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과 서유석 금융투자협회장, 김근익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장 등 금융기관 중책 담당자들이 대거 참석해 성황을 이뤘다. 특히 이번 포럼은 100세 시대를 준비하기 위한 재테크 전략이 주제인 만큼 중년층과 고령층의 참석자들이 눈에 띄었다. 또한 선착순 현장 입장과 메트로(metro)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해 생중계되면서 눈길을 끌었다. 사회적 거리두기와 실내·외 마스크 해제 이후 첫 포럼이었지만 코로나19 감염병 예방에 신경을 쓰면서 손소독제 배치와 마스크 착용을 권고했다.

○…VIP 티타임에 참석한 김영익 서강대 경영대학원 교수는 현재 글로벌 금융시장에 대해 언급해 눈길.

김 교수는 “세계경제 어려움이 국내 금융시장과 주식시장에 영향을 조금씩 미치고 있다”며 “중요한 것은 실물경제

가 침체에 빠질 가능성이 높아 소비자 위축으로 이어져 금융시장에 충격을 가할 수 있다”고. 그는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저평가된 만큼 자산운용을 위해 일부 자산을 채권에 투자하는 것이 방법”이라고 말해 눈길.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지난 22일 오후 열린 부동산 관계장관회의를 언급하며 “당분간 서민 주거와 물가 안정을 위해 부동산 가격 하락에 중점을 둘 것 같다”고 말해 관심.

김 부위원장이 집값 하락에 대해 묻자 정영채 NH투자증권 사장은 “연착륙이라는 단어 뜻처럼 부동산 변동성이 가장 적은게 좋다”고 답변. 그는 “물론, 물가안정을 위해 부동산이 과대평가됐을 경우에는 하락 압력이 필요하지만, 물가가 안정세에 접어들면 압박을 지속하지 않아도 될 듯 하다”고 평가.

허창원 보험개발원 원장도 “부동산 가격이 떨어지면 부실이 나니깐 좋지

않고, 부동산 공급 수요에 적절하게 맞춰야 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시간이 필요하다”고 답변.

○…이장규 메트로미디어 대표와 김근익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 위원장은 코스닥 상장사인 에코프로 불공정거래 이슈에 대해 이야기.

최근 한국거래소가 이상 주식거래 징후를 발견해 금융위 특삭경에 이첩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검찰과 금융당국이 에코프로 임직원들이 미공개 정보로 주식을 사고팔아 부당 이득을 얻은 혐의 등을 확인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회사 주가는 상승세를 보이는 중. 이장규 대표는 “요즘 에코프로 불공정 거래 의혹으로 떠들썩하다”고 말해. 김근익 위원장은 “최근 오스텝에 이어 연이은 불공정거래 의혹 이슈가 발생해 시끄러운 상황”이라며 “향후에는 이러한 악재가 발생하지 않고 조용했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답변. /이승용 기자

“하반기부터 수출 증가 예상… 증시 연말까지 계단식 상승”

주식시장 전망과 투자전략

염 승 환
이베스트투자증권 이사

“경기선행 지표의 하락세
완만해지고 있는 상황”
“공포심에 주식 도망가지 말고
저점부근에서 주식 담아야”

‘염블리’ 염승환 이베스트투자증권 이사가 올해 국내 증시가 연말까지 저점을 높이는 ‘계단식 상승’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중국의 리오프닝(경제 활동 재개), 미국의 리쇼어링(국내 유턴) 등이 국내 증시에는 호재로 작용할 것으로 예측되는 만큼 국내 주식에 대한 분할 매수를 추천했다.

메트로신문 주최로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2023 100세플러스 포럼’에서 강연자로 나선 염 이사는 “경기선행 지표의 하락세가 완만해지고 있는 상황”이라며 “순환론적 사고로 접근했을 때 공포심에 주식을 팔고 도망가기 보다는 힘들더라도 저점부근에서 주식을 담아야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염 이사는 “한국 증시에서 코스피의 PBR(주가순자산비율)이 저점일때 평균 0.84배 이상에서 움직이는데 이는 현재가로는 2294선”이라며 “최근 2400선을 유지중인 점을 고려했을 때 하락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고 강조했다. 또한 “하반기부터는 수출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상반기에 이어 하반기에도 저점을 높여가는 계단식 상승이 나타날 것”이라고 내다봤다.

◆ “대규모 금융 리스크 가능성은 낮아”

최근 SVB(실리콘밸리은행) 사태로 촉발된 글로벌 금융불안과 UBS은행의 CS(크레디트스위스) 인수 등 금융 안정



염승환 이베스트투자증권 이사가 지난 22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메트로경제 주최로 열린 ‘2023 100세 플러스 포럼’에 참석해 강연하고 있다. /손진영 기자

성 관리가 이슈로 떠오른 바 있다. 하지만 염 이사는 이번 일련의 상황들이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와 같은 대규모 금융 리스크로 이어지지는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염 이사는 “최근 SVB(실리콘밸리은행) 파산과 유럽 CS 유동성 위기 등 갑작스러운 신용리스크가 발생했지만, 곧 회복세에 접어들 것”이라며 “금융 리스크로 이어지지는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2008년과는 달리 미국 내에서도 부채 규모 조절이 이뤄지면서 리스크가 확산될 가능성은 낮다고 분석했다. 2008년 당시 미국의 가계부채는 GDP 대비 100%에 육박했지만, 지난해 기준으로 80% 미만에서 관리가 이뤄지고 있다는 설명이다.

또한 기준금리에 대해서도 추가적인 금리인상 보다는 미세조정을 통한 금리 충격 완화 기조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했다. 특히 미국에서는 기준금리가 5%까지 오르면서 소비자물가지수(CPI)까지 넘어설 것으로 예상돼 더 이상 인상에 나설 유인이 적다는 평가다.

염 이사는 “기준금리가 물가보다 높아지는 이런 상황에서 (금리인상) 페달



‘2023 100세 플러스 포럼 시즌1’에 참석한 VIP들

지난 22일 메트로신문(메트로경제) 주최로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2023 100세 플러스 포럼 시즌1’에 참석한 VIP들이 포즈를 취했다. (앞줄 왼쪽부터 시계 반대방향으로) 박창욱 은행연합회 전무, 이순우 메트로언론윤리실천위원회 위원장, 정지원 손해보험협회 회장,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이장규 메트로신문 대표이사, 정희수 생명보험협회 회장, 정운영 금융과행복네트워크 의장, 황정욱 저축은행중앙회 전무, 강영구 화재보험협회 이사장, 김근익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 위원장, 정완규 여신금융협회 회장, 서유석 금융투자협회 회장, 정영채 NH투자증권 사장, 허창언 보험개발원 원장, 임재택 한양증권 사장, 김영익 서강대 경영대학원 교수. /손진영 기자

을 세계 밍을 이유가 없다”라며 “물가가 꺾이는건 시간 문제이며 물가에 공포심을 가질 필요는 없다”고 전했다.

◆ 리오프닝 나선 중국, 한국에는 호재

염 이사는 중국의 리오프닝이 국내 경기에는 ‘호재’로 작용할 것으로 분석했다. 염 이사는 “전인대(전국민대표회의)에서 예상보다 못미치는 경제 지표가 발표되면서 ‘리오프닝 효과가 적은 것 아니냐’라는 말이 나오기도 한다”라며 “그러나 지난 2년간 부진했던 중국 내수와 부동산이 회복된다는 것만으로도 우리나라 경제에는 당연히 호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여기에 중국 내에서 위안화대출 증가, 도시주택 가격의 상승세 전환, PMI(구매자관리지수)의 개선 등 중국 경기 회복의 신호가 포착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일각에서 제기되는 중국의 리오프닝으로 인한 인플레이션 우려는 과하다고 꼬집었다. 오히려 리오프닝으로 인한 유통망 정상화로 글로벌 물가의 안정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염 이사는 “아직까지 중국 내 재고가

심각하게 쌓인 상황인데, 재고가 줄어 들지도 않았음에도 물가를 걱정하는 건 이른 판단”이라고 했다. 이어 그는 “세계의 도매시장 허브라고 불리는 ‘이우시’가 영업 정상화에 나선다는 것은 글로벌 공급망이 풀린다는 뜻”이라며 “물가 안정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2차전지·AI 테마 주목

미국이 리쇼어링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수혜를 입을 것으로 예상되는 2차전지, 인공지능(AI) 테마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염 이사는 “리쇼어링을 통해 신흥국으로 나갔던 일자리를 미국으로 불러 중산층 일자리 제공, 경제 성장 등을 도모하려 한다”며 “태양광, 신재생, 리사이클, 전력망, 인공지능 등 투자가 이뤄지면서 수혜를 받는 기업은 크게 성장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이같은 영향으로 2차전지 관련 종목은 이미 크게 움직인 바 있으며, 챗GPT 등 장으로 인공지능 분야가 주목받아 지속적으로 부각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붙었다.

또한 장기적으로는 코리아 디스카운트(한국증시 저평가) 해소를 위한 주주환원 확대가 국내 증시 상승에 힘을 보탤 것이라고 전했다.

염 이사는 “한국 증시는 실적보다도 항상 가치가 저평가돼 있다”며 “PBR(주가순자산비율)에서 가장 중요한 요인이 주주환원이지만 국내 증시는 전 세계에서 꼴지 수준”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적정주가까지 확보하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요소는 주주환원”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연기금의 수익률 제고를 위해서는 주주환원 강화가 효과적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염 이사는 “연기금은 국내 주식 대부분을 보유하고 있는데, 주주환원으로 국내 주식이 상승하면 연기금 수익률은 자동으로 오를 수 밖에 없다”면서 “정부도 이를 알고 있기 때문에 배당제도 개선, 외국인 투자 규제 완화 등 정책적으로도 이를 뒷받침하려는 움직임을 이어가고 있다”고 했다.

/이영석 기자 ysl@metroseoul.co.kr

“연금수령·생애주기·투자수익률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은퇴 준비와 재테크전략

김 동 업
미래에셋투자자산연금센터 본부장

“확정기여형(DC) 통해 스스로
노후 자산 투자 고민할 수 있어”
퇴직 후 건보료가 올랐다면
“임의계속가입제도 활용 해야”

“은퇴를 앞두고 퇴직금 수령 방식이나 퇴직급여제도 종류도 모르는 분들이 상당히 많다. 연금수령 방법과 함께 생애주기, 투자수익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김동업 미래에셋투자자산연금센터 본부장은 지난 22일 메트로신문(메트로경제) 주최로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2023 100세 플러스 포럼’에서 은퇴부터 사망까지 자산을 관리하는 핵심 비법 7가지를 제시했다.



김동업 미래에셋투자자산연금센터 본부장은 ‘2023 100세 플러스 포럼’에서 은퇴부터 사망까지 자산을 관리하는 핵심 비법 7가지를 제시했다. /손진영 기자

김 본부장은 수 년 간 강의를 진행하며 받은 질문을 토대로 ▲퇴직급여 관리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 방법 ▲퇴직 후 건보료 ▲노령연금 수령 시기 ▲주택연금 ▲유족연금 ▲유언장 작성요령 등 자산관리 비법을 공유했

다.

우선 퇴직급여는 크게 ‘퇴직금’과 ‘퇴직연금’으로 나눌 수 있다. 퇴직금은 은퇴 전 직장에서 받은 임금에 따라 상이하며 회사가 직접 관리한다. 개인이 신경 쓸 필요 없이 수령만 하면 된다.

반면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의 경우 매년 연봉의 12분의 1을 근로자의 퇴직계정에 적립한다. 근로자가 직접 운용해 수익을 낼 수 있는 것이다. 활용도에 따라 노후 자산관리의 분수령으로 작용할 수 있는 셈이다.

김 본부장은 퇴직금 수령시 세금을 줄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퇴직금을 중간정산 받았다면 과세에 주의해야 한다”면서 “최종 퇴직금 수령 시 근속연수와 금액에 따라 세금 부과 기준이 달라지기 때문에 퇴직금 수령 시 중간정산 금액과 합쳐서 세금 누수를 막을 수 있다”고 했다.

퇴직금 통장도 다르다. 만 55세 이전 은퇴자는 반드시 개인형퇴직연금(IRP)계좌를 통해 받지만 만 55세 이후 은퇴자의 퇴직금이 300만원 미만인 경우 일반계좌로 수령 받는 것도 가능하다.

김 본부장은 “일반계좌로 퇴직금을 수령하면 즉시 세금을 낸다”면서 “반면 IRP계좌는 연금수령 전까지 세금을 내지 않아 지불 예정 세금을 투자에 활용할 수 있다”고 했다.

김 본부장은 퇴직 후 건보료가 증가했다면 임의계속가입제도를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건강보험공단을 방문해 임의계속가입제도를 신청하면 은퇴 전 지불하던 건강보험료를 3년간 더 지불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노령연금 또한 자신의 건강 상태, 자산포트폴리오 등에 맞춰야 한다. 수령 금액에만 집중하면 자칫 손해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김 본부장은 “노령연금은 1년씩 앞당겨 받을수록 수령 금액의 6%가 감소한

다”면서 “최대 5년까지 조기 수령이 가능하지만 늦춰 받으면 1년에 지급액이 7.2% 증가한다”고 말했다.

국민연금은 5년까지 수령 기간을 늦출 수 있다. 지급액만 놓고 보면 늦추는 게 정답이지만 건강상태에 따라 수령 시기를 정하는 게 낫다는 설명이다. 60세 남성 기준 80세까지 생존할 확률은 68.3%지만 90세까지 살아있을 확률은 25.2% 수준이기 때문이다.

김 본부장은 유언장을 쓸 때도 주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반드시 자필로 작성해야 하며 주소, 내용, 작성일, 날인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는 것. 혹여나 컴퓨터를 활용해 유언장을 작성했다면 무용지물이 될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고 했다. 본문 또한 자산 증여에 관해 구체적으로 기재하고, 부동산을 증여하고 싶다면 토지, 건물 등을 구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본부장은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실천을 해야 한다”며 “내일을 바꾸기 위해 오늘 배운 것들을 꼭 활용했으면 좋겠다”고 했다.

/김정산 기자 kimsan119@



Hi Green
Hi Innovation
Hi Growth
Hi Flex

친환경 에너지 솔루션으로 진화하는
SK에너지와 함께

그린으로 플렉스



2030 부산세계박람회유치
SK도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Hi SK 이노베이션 SK 에너지 SK 지오센트릭 SK 온 SK 엔무브 SK 인천석유화학 SK 트레이딩 인터내셔널 SK 아이이테크놀로지 SK 어스온

양극재 소재 '핵심 경쟁력' 부상 韓 주요기업 LFP 가능성 주목

/유토이미지

배터리 판도 변화

배터리 형태를 알게 되었다면 이제는 소재에 따른 구분을 할 필요가 있다. 배터리는 제조에 사용하는 양극재 소재에 따라 구분할 수 있다.

국내 기업들은 1회 주행거리가 길고 상대적으로 연비가 뛰어난 '삼원계 배터리'를 만드는데 집중해 왔고, 중국은 가격 경쟁력과 화재 안정성이 삼원계보다 뛰어난 'LFP 배터리'를 보급해왔다. 하지만 최근에는 판도가 바뀌는 모양새다. 각자의 영역에서 완성차 업체들과 협력해온 한국과 중국의 배터리 기업들은 이제 LFP 배터리를 주목하고 있다.

삼원계, 니켈·코발트 등 세가지 조합
니켈 수급에 따라 가격·생산 등 영향
LFP 대비 에너지밀도 높고 가벼워

◆ "LFP가 뭐길래?"...삼원계 만큼 찾는다

삼원계는 '니켈(Ni), 코발트(Co), 망간(Mn)'과 '니켈, 코발트, 알루미늄(Al)' 조합으로 구성된다. 원소의 이름의 앞글자를 따 'NCM'과 'NCA'로 불리며 니켈 함량에 따라 에너지 밀도가 좌우된다. 나머지 코발트와 망간은 배터리의 화학적 안정성을 높이는 소재로 쓰인다.

니켈은 주행거리를 결정짓는 핵심 소재다. 밀도가 높을수록 더 많은 전기 에너지 충전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게다가 LFP 배터리보다 가볍기에 전기차에 니켈 함량이 높은 배터리가 들어간다면 더 연비 좋은 전기차를 가진다는 의미가 된다.

하지만 삼원계 양극재는 '니켈'의 수급에 큰 영향을 받는다. 니켈은 희귀한 금속에 속하고, 니켈 가격이 치솟으면 삼원계 양극재 가격은 더 크게 된다. 원가율이 커지면 완성차 업체들이 아무리 좋은 배터리라도 선택하기 힘들어지는 것은 현실이다.

게다가 삼원계 양극재는 화학적 구조가 불안정한 나머지 '열폭주' 가능성이 LFP 배터리보다 상대적으로 높아 소비자들이 불안 요소로 꼽힌다.



SK온의 NCM9+ 배터리



LG에너지솔루션의 LFP 파우치 배터리 셀

/허정윤 기자

그에 반해 LFP배터리는 양극재로 리튬인산철(Li-FePO₄)을 사용한다. 중국의 배터리 업체인 CATL과 BYD는 LFP 개발에 적극적으로 나서 중국 내수 시장과 저가 전기차 시장을 사로잡으며 성장해온 업체이기도 하다.

해당 배터리의 핵심 소재인 철(Fe)은 지구가 풍부하게 가지고 있는 흔한 소재 중 하나다. 철의 가격이 니켈의 가격보다 안정적이다보니 LFP 배터리 가격은 삼원계 대비 약 30% 이상 저렴하다는 장점이 있다. 또한 리튬인산철 배터리는 화학적으로 원소 결합이 삼원계 배터리보다 안정적이어서 안정성 측면에서도 강점을 가진다.

LFP, 철 소재로 가격·안정성 강점
삼성 등 국내 배터리 3사 개발 예고
재활용 업계 주목... 시설 증설 고심

다만 LFP 배터리는 에너지 밀도가 낮고 무겁다는 단점이 있다. 고급형 전기차에서는 채택하지 않는 이유다. 주행거리가 긴 전기차라면 LFP 배터리를 탑재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게다가 저온에 약해 추운 겨울철에는 에너지 효율이 떨어진다.

그럼에도 CATL의 지난해 순이익률은 9.34%, 2021년 순이익률은 14%에 달하며 LFP 배터리로 높은 성장세를 보였다. 2020년 세계 전기차 시장을 주도하는 테슬라가 저가형 전기차에 LFP 배터리를 도입했고, 이어 메르세데스-벤츠, 폴크스

바겐, 포드 등이 LFP 배터리 도입을 선언했다. 빠르게 성장하는 전기차 시장에 LFP 배터리의 성장은 예고된 것이었다. 앞으로 국내 배터리 3사도 모두 LFP 배터리 개발에 뛰어날 것이라고 예고해 글로벌 시장에서 가격 경쟁이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시장에 LFP 배터리가 많이 보급되자 재활용 배터리 업계도 주목하고 있다. 폐배터리 재활용은 삼원계의 니켈, 망간, 코발트, 리튬 등을 수거하기 위해 움직인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배터리 재활용 업체들은 LFP 배터리에도 니켈이 들어가지지만 소량 들어가기 때문에 이를 위해 재활용 공정 시설을 증설할지는 고민 중이다.

삼원계 배터리 재활용을 위해 사용되는 공장은 LFP 배터리 재활용을 겸할 수 없기 때문이다. LFP 배터리에 다량 포함된 철 성분이 같은 트림에 오를 수 없다는 게 배터리 재활용 업계의 지배적인 의견이다.

/허정윤 기자 zelkova@metroseoul.co.kr

>> 1면 '배터리의 진화 어디까지...'서 계속

초급속 충전시대 '성큼' SK온, 연내 시제품 생산

마지막으로 "각형 배터리"는 각형은 금속 캔 형태로 원통형에 비해 얇고 파우치 형과 비교해 내구성이 뛰어나다는 평가를 받는 배터리 형태 중 하나다.

각형 배터리는 사각형 모양의 금속 캔(CAN)에 양극, 음극, 분리막, 전해질 등의 소재를 집어넣는 형태로 중국 배터리 업체들이 주로 생산해왔다. 교환식 배터리 휴대폰의 배터리 모양을 떠올리면 된다.

단점은 알루미늄 캔을 사용해 무게가 무거워 다른 배터리에 비해 주행거리가 짧다. 또한 알루미늄 캔을 사용하기에 열 방출이 어려워 냉각 장치가 필요하다. 이는 생산비용이 높아지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그럼에도 각형 배터리의 점유율은 시장에서 높다. 폭스바겐이 2030년까지 자사 전기차 배터리의 80%를 각형으로 바꾸겠다는 '배터리 로드맵' 발표했고, 완성차 업체인 BMW, 아우디, 포드, 포르쉐, 토요타도 각형 배터리를 채택하고 있어 시장성이 밝다.

이에 SK온은 이번 '인터배터리 2023'을 통해 18분 만에 80%까지 충전할 수 있는 '급속충전 배터리'보다도 충전 속도를 더 높인 것이 특징인 각형 배터리를 선보였으며, 올해 안에 시제품 생산에 돌입한다는 계획을 세우기도 했다.

/허정윤 기자



삼성SDI 헝가리 법인



/삼성SDI LG에너지솔루션 미국 미시간주 배터리공장



/LG에너지솔루션 SK온 서산 배터리 공장

/SK온

함께 성장하며
행복을 나누는 금융

하나 소셜벤처 유니버시티 우수상
에브리틱 팀 윤준성 김용운 양정구

대한민국 청년들의 미래를 위해
창업 지원도 취업 지원도
하나금융그룹이 함께합니다

하나 소셜벤처
유니버시티 바로가기

하나금융그룹 ESG 캠페인



..... 하나 소셜벤처 유니버시티

하나금융그룹과 고용노동부 그리고 전국 협력 대학이 함께
지역 청년들의 차별 없는 창업과 취업을 지원하는 프로그램

하나금융지주 · 하나은행 · 하나증권 · 하나카드 · 하나캐피탈 · 하나생명 · 하나손해보험 · 하나저축은행
하나자산신탁 · 하나대체투자자산운용 · 하나에프앤아이 · 하나벤처스 · 하나펀드서비스 · 하나금융티아이 · 핀크

 하나금융그룹

野 강행에 ‘양곡관리법’ 본회의 통과… ‘尹 거부권’ 주목

찬성 169명, 반대 90명, 기권 7명
여야 공방 끝, 야당 주도로 처리

與 “공급과잉·경쟁력 저하 악순환”
野 “농민 안중없는 후안무치 태도”
대통령실 “의견 충분히 숙고 예정”

쌀 가격이 급락하거나 초과생산될 경우 정부 매입을 의무화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여야는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를 열고 재석 266명 중 찬성 169명, 반대 90명, 기권 7명으로 ‘양곡관리법 개정안 수정안’을 처리했다. 양곡관리법은 지난해 쌀 가격 하락을 계기로, 민주당이 주도해 발의됐지만 의무 매입 조항을 두고 여야가 공방을 벌였지만 끝내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야당 주도로 처리됐다.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본회의 제안설명에서 “정부여당은 공산화법 운운하며 철지난 색깔론으로 편협하는가 하면, 쌀 과잉생산으로 국가재정이 거덜난다며 대통령 거부권마저 거



2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4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한 수정안’이 통과되고 있다. /뉴시스

론하고 있다”며 “농민은 안중에도 없는 후안무치한 정부여당의 태도가 참으로 안타깝다. 다시는 농심에 피멍이 들지 않도록 쌀값 정상화를 이루고자 국회의장의 중재안을 받아 수정안을 발표했다”고 설명했다.

수정안에 따르면 정부는 쌀 초과생산량이 3~5% 이상이 되거나 전년 가격대

비 5~8% 이상 하락했을 경우에 시장격리를 의무화해 매입 요건을 원안보다 완화했다. 또한 시행 이후 벼 재배면적이 증가할 경우 시장격리 요건이 충족되더라도 초과 생산량을 매입하지 않도록 해 정부의 재량권을 늘렸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농해수위) 여당 측 간사인 이양수 국

민의힘 의원은 토론에서 “야당 주장대로 시장격리를 의무화하면 재배 유인 증가로 공급 과잉을 심화시키고 시장기능을 저해해 정부의 재정부담 늘리게 된다. 그뿐 아니라 미래 농업 투자도 감소시켜 경쟁력 저하라는 악순환 불러올 악법”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농해수위 소속 신정훈 의원은 토론에 나서 “민주당이 발의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단순하고 명쾌하다. 구조적이고 만성적인 쌀의 과잉 생산을 적극적인 재배 면적 관리와 생산 조정을 통해서 해소하자는 것”이라며 “그리고 작황에 의한 돌발적인 일시적 과잉에 대해서는 즉각적인 시장 격리로 해결하자는 것이다. 지난 2022년 국회에서 쌀 목표가격을 폐지하면서 정부가 농민과 국회에 약속한 내용이며 그 약속을 지키라는 것”이라고 설득했다.

의무 매입 조항을 담은 양곡관리법 개정안 처리 시 대통령 거부권 행사를 시사한 대통령실은 “법률개정안이 정부에 이송되면, 각계의 우려를 포함한 의견을 경청하고 충분히 숙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김진표 국회의장,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회동하고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올린 선거제도 개편안을 전원위원회에서 심의한 뒤, 여야 합의로 단일의 수정안을 처리하기로 공식 합의했다.

전원위는 ▲중대선거구제(도농복합형)+권역별·병립형 비례대표제 ▲소선거구제+권역별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개방명부식 대선선거구제+전국·병립형 비례대표제 등 세 가지 안을 논의한다. 의원 전원위 선거제 개편에 대한 논의하는 전원위는 오는 30일 본회의부터 본격가동한다.

김 의장은 “전원위를 통해 국회의원 299명 전원의 의견을 수렴하여 법정시한인 4월 중에 여야 합의로 단일한 수정안을 처리하기로 했다”며 “전원위 의장을 맡게 될 김영주 국회 부의장은 30일 본회의에서 전원위가 구성된 직후부터 즉시 가동될 수 있도록, 양 교섭단체 간 사들과 미리 협의하여 발안자, 의제, 질의·토론 방식 등 운영에 관한 사항들을 준비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박태홍 기자 pth7285@metroseoul.co.kr

與의원 51명 ‘불체포특권 포기’ 서약… “방탄국회 삭제”

진정한 개혁수단… 與 지도부 참여
“특정 인물 대상으로 한 것 아니야”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 51명이 ‘불체포특권’ 포기 서약을 했다. 국민의 정치 불신 원인이 되는 국회의원 불체포특권 포기로 정치개혁하자는 제안이다. 최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노웅래 의원 체포동의안이 부결된 점을 겨냥한 행보로 해석된다.

김형동·박정하·유의동·이태규·최형두 의원 등은 23일 국회 소통관에서 불체포 특권 대국민 서약 기자회견을 했다. 이들은 “대한민국 국회의원으로서 본인의 범죄혐의로 인해 회기 중 체포동의안이 제출될 경우, 헌법 제44조에 규정된 국회의원 불체포특권을 포기하고, 본회의 신상 발언을 통해 체포동의안 통과를 동료 국회의원들에게 요청할 것을 국민 앞에 약속한다”고 발표했다. 불체포특권 포기에 국민의힘 지도부



이태규, 조정태, 유의동, 하태경 등 국민의힘 의원들이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불체포특권 포기 대국민 서약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시스

도 참여한다는 방침이다. 유의동 의원은 회견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김기현 당 대표, 주호영 원내대표 등 지도부도 참여하는 것인지 질문에 “이미 지도부도 분명한(불체포특권 포기) 입장을 표명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이어 “(불체포특권 포기를) 정쟁 수단으로 쓰려는 것이 아니라, 국회의 진정한 개혁을 위한 수단이라고 생각한

다. 지도부도 나름 판단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불체포특권을 포기하기로 한 이유에 대해 “지금은 대내외적 복합위기 속에서 위기 극복,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해 어느 때보다 변화와 혁신이 요구되는 시점”이라며 정치 또한 예외가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했다.

그러면서 “정치 기득권을 내려놓는

첫 번째 개혁 과제는 대한민국 정치사에서 ‘방탄 국회’라는 용어를 삭제하는 것이라고 의견을 모았고, 헌법 제44조에 명시된 국회의원 불체포특권의 포기를 통해 실현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고 강조했다.

개헌 없이 불체포 특권을 없앨 수 없는 만큼 이들은 ‘사문화’(死文化)시키는 방법으로 국민 앞에 서약하기로 한 것이라고 했다. 대국민 서약에 참여한 국회의원들에게는 불체포특권 포기가 ‘강력한 정치적 구속력’을 갖게될 것이라고 판단했다.

이들은 ‘현행범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기 중 국회 동의 없이 체포·구금되지 않는다’고 한 불체포특권은 현재와 맞지 않는 제도로 판단한 뒤 “더 이상 불체포특권을 의원의 비리 방어 수단으로 악용하는 것을 시대와 국민이 용납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방탄 국회 때문에 정치에

대한 국민 불신이 심화되고 여야 갈등 원인이 되는 것을 정치권 스스로 끊을 때가 됐다. 무엇보다 국회가 불체포특권을 부패정치보호 수단으로 악용하고 있다는 오명을 뒤집어줄 이유가 없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불체포특권 포기에 여야국회의원들의 참여도 호소했다. 다만 현 시점에 국민의힘 의원만 참여한 데 대해 이태규 의원은 “민주당은 이 대표 사안이 있기에 정쟁과 오해 소지가 있다. 이에 우리 당 의원에 한해서 제안한 것”이라고 했다.

이 대표와 노웅래 의원 체포동의안 부결을 고려한 판단이라는 취지의 질문에 박정하 의원은 “관련없다. 원론적, 원칙적인 입장으로 시작한 것”이라고 선 그었다.

유의동 의원도 “헌법이 준 불체포특권에 대한 국민적 인식과 효용을 다한 것 같다는 판단을 했고, 개헌하지 않고(불체포특권을 포기하는) 방법을 고민한 끝에 내린 결론이다. 특정 인물을 대상으로 한 것은 아니다”고 했다.

/최영훈 기자 choiyoungkr@

민주, 李 ‘당헌 80조’ 예외결정에 내홍 격화

전해철, 당무위서 기권·퇴장
“절차적 정당성 지켜지지 않아”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기소할 것을 ‘정치탄압’으로 규정하고 당직 정치 예외를 적용한 22일의 민주당 당무위원회 의견 수렴 과정에 절차적 문제가 있다는 내부 지적이 나왔다.

민주당 당헌 제80조에 따르면, 당 사무총장은 부정부패와 관련한 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당직자의 직무를 기소와 동시에 정지할 수 있다. 다만, 당무위원

회가 정치탄압 등 부당한 이유가 있다고 의결하면 달리 정할 수 있다.

성남시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과 성남FC 후원금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이 대표를 배임과 뇌물 혐의 등으로 기소했기 때문에 당 사무총장은 당직 정치 여부를 판단해야 했다. 다만, 당무위원회는 검찰의 기소 발표가 나온 날(22일) 오후에 당무위원회를 열어 ‘정치탄압’ 등 부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했다.

하지만,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

장 자격으로 당무위원회에 참석한 전해철 의원은 절차적 정당성의 문제에 우려를 드러내며 기권하고 회의를 빠져나온 것으로 나타났다.

김의겸 민주당 대변인은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당무위원회 관련 백브리핑을 갖고 전 의원이 ▲기소 시 당직 정치에 대한 해석 문제 ▲검찰 기소 후 촉박한 시간에 당무위를 열고 당직 정치 예외를 결정한 점 ▲공소장을 제대로 볼 시간이 주어지지 않은 점을 들어 우려를 드러냈다고 전했다.

전해철 의원은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앞서 열린 의원총회에서도 당무위 결정에 절차적 정당성이 지켜지지 않았다고 지적한 것으로 알려졌다. 오영환 원내대변인은 의원총회 후 취재진에게 당무위원회에 반대 뜻을 나타낸 의원은 “전 의원 말고 또 한 분이 있었다”고 말했다.

반면, 당 지도부는 검찰이 윤석열 정부의 지지율 하락을 이 대표 기소로 덮으려고 하고 있다며 날을 세웠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대일 굴욕외교로 돌아선 민심을 어떻게든 덮어보려는 윤석열 정권의 ‘물타기 기소’로밖에 볼 수 없다”면서 “여기에 주69시간제가 촉발

한 노동개혁 실패와 집권여당 사당화 논란까지 겹쳐 대통령 직무수행에 대한 긍정평가는 연일 폭락중”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부정평가가 임계점이나 다름없는 60%를 또다시 넘어서자 검찰이 야당 대표 기소 카드를 꺼내든 것 아니겠나. 하지만 아무리 정적 죽이기에 공권력을 휘둘러 봤자 돌아선 민심이 회복될 리 없다”고 덧붙였다.

우상호 전비상대책위원장장도 KBS라디오에 출연해 이 대표에 대한 기소가 ‘정치적’이라고 주장하며 당무위 의결이 당연한 수순이었다고 강조했다.

/박태홍 기자

SK이노, 글로벌 암모니아기술 연합 주도 위해 650억 투입

美아모지에 5000만弗 추가 투자
1.4억弗 규모 ‘시리즈B-1’ 참여
전략적 투자자로 밀접 협업 추진
넷제로 실현 기술 상업화 가속도

SK이노베이션이 청정 에너지 공급을 위해 암모니아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보고 투자에 박차를 가한다.

SK이노베이션이 지난해 투자한 암모니아 기반 수소 연료전지(암모니아 연료전지) 시스템 전문기업 ‘Amogy(아모지)’에 5000만 달러(약 654억 원)를 추가 투자했다. 글로벌 탄소감축을 위한 세계적인 암모니아 생태계 구축 노력에 주도적으로 참여하기 위해서다.

SK이노베이션은 아모지가 최근 모집한 1억3900만 달러 규모의 ‘시리즈B-1’ 투자에 참여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투자는 SK이노베이션의 주도로 싱가포르 국부펀드 테마섹, 사우디아라비아 에너지기업 아랍코의 투자사 아랍코벤처스, 영국 수소산업 전문투자기업 AP벤처스, 일본 최대 해운



아모지가 암모니아 기반 수소 연료전지 시스템을 적용해 실증을 진행했던 대형트럭

/SK이노베이션

사 상선미쓰이(MOL)의 투자사 MOL 플러스, 일본 산업용 엔진 전문기업 안마(Yanmar)의 투자사 안마벤처스, 일본 화학기업 제온(Zeon)의 투자사 제온벤처스, 한국 고려아연 등이 참여했다.

2020년 11월 설립된 아모지는 수소와 질소의 화합물인 암모니아를 연료전지 연료로 주입해 탄소배출 없이 동력을 발생시키는 기술로 세계적인 주목을 받고 있다.

암모니아는 같은 액화상태일 때 수소

보다 저장, 운반이 경제적이고 용이해 수소 경제 실현을 위한 현실적 대안으로 꼽힌다. 아모지의 기술은 암모니아에서 수소를 추출하는 ‘크래킹(cracking)’ 과정을 기존 수소 연료전지 시스템과 일체화한 점이 핵심이다. SK이노베이션은 아모지의 기술력이 ‘Carbon to Green’ 비전과 일치한다고 보고, 지난해 아모지에 3000만 달러를 첫 투자했다.

SK이노베이션은 이번 시리즈B-1 투자 주도를 계기로 전략적 투자자로서

아모지와 보다 밀접한 협업관계를 구축했다.

청정 에너지 수요가 커질 것으로 기대되는 아시아 및 오세아니아 지역 내에서의 사업개발 및 상업화를 위한 협력 등 암모니아 기반 수소 연료전지와 관련한 협력 범위를 확대했다. 또한 글로벌 사업 확대를 위해 양 시간 미래 사업 협력 방향을 논의해 나가기로 했다.

지난해 첫 투자 후, 이번 추가 투자를 통해 두터운 협력관계가 구축되면서 SK이노베이션은 탄소감축을 위한 핵심 기술기반을 확보하고, 아모지는 SK이노베이션의 글로벌 네트워크 및 사업경험을 활용한 시장 개척에 속도를 낼 수 있게 됐다.

아모지는 2021년 5kW급 드론, 지난해 100kW급 트랙터를 암모니아로 구동했고, 올해 1월에는 300kW급 클래스 8 대형트럭까지 암모니아를 연료로 주행하는데 성공하는 등 암모니아를 활용한 운송분야 탄소감축 실현에 속도를 내고 있다. 클래스8: 총 중량이 3만 3000 파운드(약 15톤)에 이르는 미국의 대형트럭 최대 규격이다.

아모지는 시리즈B-1 투자 후 시스템

적용 범위를 선박까지 넓히기 위해 연내 예인선을 활용한 실증 시험을 추진하고 있으며, 2024년부터 본격적인 상업화에 나설 계획이다.

김준 SK이노베이션 부회장은 “탄소 배출 없는 청정 에너지 공급을 위한 암모니아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데에 SK이노베이션과 아모지는 인식을 같이하고, 앞으로도 관련 R&D와 시장 확대에 노력할 것”이라며 “시리즈B-1 투자에 여러 글로벌 기업들이 참여한 건 탄소감축을 위한 청정 에너지원으로서 암모니아의 비전에 적극 공감했기 때문이다”라고 말했다.

우성훈 아모지 대표는 “아모지의 핵심 투자자이자 파트너사인 SK이노베이션 주도로 이뤄진 시리즈B-1 투자를 발판삼아 아모지는 2050년 넷제로 실현을 위한 기술 상업화에 한층 가까워졌다”며 “암모니아 기반 수소 연료전지 시스템이 보다 나은 세상을 만드는 기술로 시장에서 평가받고, 글로벌 아젠다인 ‘탈탄소’ 및 ‘에너지 전환’ 문제를 해결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허정윤 기자 zelkova@metroseoul.co.kr

“칠전팔기로 최적의 휴대성·성능 구현”

‘갤럭시 북3 울트라’ 미디어 브리핑
스마트폰·PC 등 제품 연결성 강화
‘노태북’ 화제… 전작比 2.5배 판매

“새로운 프리미엄의 기준을 세우는 제품으로 개발하고자 했습니다.”

삼성전자가 내놓은 고성능 노트북 ‘갤럭시 북3 울트라’ 개발에 참여한 삼성전자 MX사업부 뉴컴퓨팅 하드웨어 개발2그룹장 심황윤 상무가 한 말이다.

23일 서울 중구 삼성전자 기자실에서는 갤럭시 북3 울트라 미디어 브리핑을 진행했다.

심 상무는 “갤럭시 북3 울트라는 기존 고성능 노트북 제품과 다르게 ▲가벼운 무게와 디자인으로 이동성을 가지면서도, ▲최적의 성능을 통해 작업 효율을 높이고 고사양 게임까지 즐길 수 있는 제품”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갤럭시 스마트폰에서 축적한 경험과 기술력을 바탕으로 최고 사양의 하드웨어를 보다 슬림한 디자인으로 풀어내기 위해 모든 것을 처음부터 고민했다”고 말했다.

시장의 반응은 뜨거웠다. 삼성전자 MX(모바일경험)사업부장인 노태문 사장의 별명이 ‘노태북’이 될 정도였고,



23일 삼성전자 MX사업부 뉴컴퓨팅 하드웨어 개발2그룹장 심황윤 상무가 갤럭시 북3 울트라로 구현 가능한 갤럭시 에코시스템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다.

/손진영 기자

현재까지 전작 대비 2.5배의 판매를 기록 중이다.

갤럭시 북3 시리즈는 스마트폰, 태블릿, PC 등 제품간 연결성을 강화하는데도 주력했다. 갤럭시 고객이 보유하고 있는 다양한 기기간 매끄러운 사용 경험을 구현했다. 퀵 셰어(Quick Share) 기능을 통해 스마트폰에 있는 사진, 영상과 문서를 갤럭시북으로 편리하게 옮길 수 있으며, 기기간 하드웨어 공유도

가능하며, ‘링크 투 윈도우(Link to Windows)’를 통해 PC와 모바일 환경 간 경계를 줄였다.

삼성전자는 갤럭시 기기간의 연결 경험은 마이크로소프트, 인텔, 엔비디아 등 주요 파트너사와의 전략적 협업을 통해 실현할 수 있었다. 개방형 협업을 기반으로 인텔의 이보(EVO) 인증을 획득했으며, 마이크로소프트의 보안 관련 시큐어코어 PC의 경우 일반 소비자 대상 제품으로는 유일하게 갤럭시 북 시리즈가 인증을 받았다.

갤럭시 북3 시리즈는 가벼운 이동성을 확보하면서도 강력한 성능 탑재를 위해 노력했다. 삼성전자는 무게를 덜기 위해 CPU, GPU, 메모리의 배치를 최적화하고 개발 초기 여러가지 보드 레이아웃을 구상했고 시제품을 통해 가장 효율적인 보드 디자인으로 확정했다. 냉각 시스템도 효과적으로 재설계했다.

심 상무는 “실제 갤럭시 북3 울트라는 다양한 종류의 포트 간 신호를 손실 없이 깨끗하게 전달하기 위해 메인보드를 ‘8번’이나 재설계하며 칠전팔기 끝에 최적화 했다”고 설명했다. /허정윤 기자

“비온드 무어로 세상에 없는 제품 만들 것”

강문수 AVP사업팀 부사장 기고문
무어의 법칙 한계… 새 방법 필요

삼성전자가 미세 공정 어려움 속에서도 패키지 기술을 통해 ‘무어의 법칙’을 뛰어넘겠다는 자신감을 드러냈다.

삼성전자는 23일 뉴스룸에 강문수 어드밴스드패키징(AVP)사업팀 부사장(사진) 기고문을 게재했다.

AVP는 삼성전자가 지난해 12월 신설한 조직이다. 중요성이 크게 높아진 패키징 기술과 제품 개발을 담당하게 된다.

강 부사장은 집적도가 24개월마다 두 배로 늘어난다고 예측한 ‘무어의 법칙’이 반도체 산업 발전 근간이었지만, 공정 미세화가 물리적 한계에 도달하면서 한계에 가까워졌다고 분석했다. 그럼에도 여전히 다채다능한 반도체가 필요한 상황, 무어의 법칙을 넘어설 새로운 방법인 ‘비온드 무어’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비온드 무어는 첨단패키징 기술로 집적도를 극대화하는 방법이다. 반도체를



수평과 수직으로 연결해 더 많은 트랜지스터를 작은 칩에 넣어 미세 공정 한계를 넘겠다는 것. 글로벌 패키징 시장이 연 평균

10% 가까이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는 것도 이 때문이다.

강 부사장은 삼성전자가 경쟁력 있는 패키지 제품을 공급할 수 있는 회사라고 자신했다.

세계에서는 유일하게 메모리와 로직, 패키지 등 모든 사업을 가지고 있어, 이중 집적 기술을 통해 경쟁력 있는 2.5차원이나 3차원 패키지 제품을 공급할 수 있다는 것. ‘RDL’과 ‘실 인터포저 브릿지’, TSV 적층 기반 차세대 패키지 솔루션을 핵심 개발 기술로 들었다..

목표는 ‘초연결’로 정했다. 반도체 성능과 기능을 더하는 것뿐 아니라 더 큰 시너지를 만들겠다는 목표다. ‘고객 중심 사업 전개’로 ‘세상에 없는 제품’을 가능케 하겠다고 덧붙였다.

/김재용 기자 juk@

LG전자, 상담사 ‘3주 재택 1주 출근’ 눈길

‘밸런스 근무제’로 근무환경 개선

LG전자가 ‘고객 가치 크리에이터’로 앞장서는 상담사, 상담 컨설턴트를 위해 전폭적인 지원에 나선다.

하이텔서비스는 23일 상담 컨설턴트를 대상으로 ‘밸런스 근무제’를 운영

한다고 밝혔다.

밸런스 근무제는 3주간 재택근무, 1주에만 사무실에 출근하는 제도다. 코로나19 팬데믹 시기 운영하면서 효율성을 확인해 지난해 말 완전히 정착시켰다. 이를 통해 평균 2시간에 달하는 출퇴근 소요시간을 돌려줄 수 있게 됐다.

재택근무 환경도 보장한다. 재택근무용 장비로 고성능 헤드셋과 저소음 키보드 및 마우스, 27인치 모니터 등 수준으로 교체해줬다.

여유로워진 사무실은 더 일하기 좋았다. 상담 좌석 너비와 높이를 20cm씩 늘리고, 휴게 공간에는 조직문화 혁신을 위해 자유롭게 생각하는 공간인 ‘리인벤트홀’도 조성했다.

/김재용 기자

기존 납기일 보다 3개월 앞서 도착
특별연장근무로 업무효율 극대화

현대로템이 폴란드로 향하는 K2 전차 출고에 속도를 내고 있다.

현대로템은 22일(현지시간) 폴란드 그드니아에 K2 전차 5대가 기존 납기인 오는 6월보다 약 3개월 앞서 도착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를 위해 현대로템은 업무 부하가

예상되는 팀을 중심으로 인력을 재배치하고, 특별연장근로 신청을 통한 근무시간 연장으로 업무효율을 극대화해 K2 전차가 신속하게 출고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해왔다. 이번에 도착한 K2 전차는 지난해 8월 폴란드 군비청과 실행계약을 체결한 긴급 소요분 180대 중 일부 물량으로, 현지 통관과 검수 과정을 거쳐 폴란드 군에 공식 인도될 예정이다.

/양성운 기자 ysw@

SKT, 5월부터 5G 중간요금제 출시… 月 최대 1만원 절약

SKT, 업계 최초 맞춤형 선보여
청년·시니어 특화 혜택 기대도

과기통 “고객 선택지 2배 확대”
KT·LGU+도 조만간 출시 예정

SK텔레콤이 5월 1일부터 데이터 13GB에서 99GB를 커버하는 5G 중간요금제를 선보인다. KT와 LG유플러스도 조만간 중간요금제를 내놓을 계획이어서 50GB 이상의 중간요금제가 보편화될 전망이다.

SK텔레콤은 23일 고객의 다양한 이용 패턴과 연령대 특성을 고려한 5G 요금제 개편을 통해 요금 상품 다양화 및 선택권 확대에 나선다고 밝혔다. 5G 맞춤형 요금제로 중간요금제를 선보이고, 신규 시니어 요금제도 선보이기로 했다.

SKT의 5G 요금제 개편은 오는 3월 말 ‘5G 시니어 요금제’ 출시를 시작으로 5월 ‘5G 중간 요금제’, 6월 5G ‘0청년 요금제’ 출시까지 순차적으로 추진될 예정이다. 이를 통해 SKT의 5G 요금제는 기존 총 20종에서 45종으로 두 배 이상 증가해 고객의 요금 선택권도



서울의 한 종합이동통신 대리점의 모습.

/뉴스시스

확대했다.

SKT는 지난해 8월 출시한 5G 중간요금제인 베이직플러스(월 5만 9000원)를 기본으로, 추가 데이터 옵션 4종 중 고객이 원하는 하나를 조합해 이용하는 ‘5G 맞춤형 요금제’를 업계 최초로 오는 5월 1일 선보인다.

5G 맞춤형 요금제에서 선택 가능한 옵션은 월 ▲3000원(+13GB) ▲5000원

(+30GB) ▲7000원(+50GB) ▲9000원(+75GB) 등 총 4종이다. 예를 들어 월 데이터 사용량이 평균 50GB정도 되는 고객은 월 5만 9000원의 베이직플러스 요금제에 5000원을 추가해 월 6만 4000원에 데이터 54GB(24GB+30GB)를 사용할 수 있다.

SKT는 또 오는 6월 1일 만 34세 이하 5G 고객을 위한 ‘0(영)청년 요금제’ 7종

과 ‘0(영) 청년 맞춤형 요금제’ 4종 등 총 11종을 새롭게 선보인다.

청년 요금제는 데이터 제공량을 확대하고 특화 혜택을 추가 제공해 청년층 고객의 가계 통신비 부담 완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SKT는 0청년 요금제 출시로 만 34세 이하 고객 600만명 이상이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아울러 SK텔레콤은 만 65세 이상 가입자를 대상으로 4만원대 신규 요금제 3종도 내놓는다.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데이터 사용량이 적은 경향을 감안해 월 4만5천원에 데이터 10GB를 제공하는 ‘5G 시니어 A형’(만 65세 이상), 월 4만4천원에 9GB ‘5G 시니어 B형’(만 70세 이상), 월 4만2천원에 8GB ‘5G 시니어 C형’(만 80세 이상)으로 구성했다.

월 10GB 이내를 사용하는 만 65세 이상 이용자라면 일반 5G 요금제를 쓸 때보다 월 4000~7000원을 아낄 수 있다. 또 시니어 요금제는 선택 약정 할인과 기초연금 수급자 복지감면, 결합할인이 중복으로 적용된다.

더불어, 해당 요금제는 기본 데이터 제공량 소진 이후에도 추가과금 없이

최대 1Mbps의 속도로 데이터 사용이 가능하다. 이는 메신저 서비스를 이용하거나 기본적인 동영상 시청에도 무리가 없는 수준이다. 또 영상·부가통화 제공량은 일반 요금제보다 100분(33% ↑) 더 제공한다.

SK텔레콤 요금제 신고를 수리한 과 학기술정보통신부는 “5G 요금제가 기존 20종에서 45종으로 2배 이상 다양해졌다”며 “특히 만 19~34세 이용자는 청년 요금제로 통신 요금을 월 최대 1만원 가량 줄일 수 있다”고 평가했다.

KT와 LG유플러스도 5G 중간요금제 출시를 준비하고 있다.

KT측은 “고객의 통신 이용 패턴을 감안해 새로운 5G 중간요금제 및 시니어 요금제를 마련하고 있다”고 말했다. LG유플러스도 “국민들의 눈높이를 고려한 요금제를 조만간 출시할 예정”이라며 “다양한 방안을 살펴보고 있다”고 밝혔다.

이통사들이 50GB 이상의 5G 중간요금제를 내놓은 것은 정부에서 이통사들에 이 같은 요금제를 마련하라고 적극 권유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통신사들은 수익성 악화를 우려해 이를 크게 고민해왔다. /채윤정 기자 echo@metroseoul.co.kr

장재훈 “소프트웨어 중심 모빌리티 주도”

(현대자동차 사장)

제55기 정기 주주총회

올해 전동화 모델 점유율 확대 계획
출고 대기시간 최소화 등 고객 편의↑
호세 무뇨스 신규 사내 이사 선임

현대자동차가 미래 모빌리티 경쟁력 확보를 위해 소프트웨어 중심의 기업으로 체질 개선에 드라이브를 건다.

장재훈 현대차 사장이 23일 서울 양재동 사옥에서 개최된 주주총회에서 “소프트웨어 중심으로 회사 전반의 시스템을 전환해 모빌리티 패러다임을 주도할 수 있는 역량을 확보할 것”이라며 “전동화 차량 시장에서 톱-티어 브랜드 달성을 위한 경쟁력 확보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현대차는 앞서 오는 2025년까지 모든 차종을 ‘SDV’로 대전환한다는 계획을 내놓은 바 있다. 또 자체 개발 소프트웨어 플랫폼을 바탕으로 2025년까지 세계 시장에서 판매되는 모든 차종에 무선(OTA, Over-the-Air)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기본 적용한다는 방침도 내놨다.



장재훈 대표이사가 3월 23일 현대차 양재동 본사사옥에서 진행된 제55기 정기 주주총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는 모습.

현대차는 올해 글로벌 자동차 시장에서 전동화 모델의 점유율 확대에도 힘을 쏟는다. 장 사장은 “충전 편의성 강화와 에너지와 통합된 서비스 패키지 등 전기차 사용 전반에 걸쳐 고객의 편의를 극대화할 것”이라며 “고성능 전기차 아이오닉 5N 출시를 통해 전동화 브랜드 경쟁력을 한층 끌어올렸다”고 밝혔다.

현대차는 올해 차량 출고 대기시간 최소화과 금융 프로그램 강화 등으로 고객 편의성 극대화에 나선다. 장 사장은 “전기차 현지 생산 체계를 강화하고,

본격적으로 전동화가 시작되는 신흥시장에서도 지배력을 확대해 글로벌 전기차 리더십을 공고히 하겠다”며 “수소생태계 이니셔티브 확대, HMGICS 제조 혁신 신기술 고도화를 비롯해 로보틱스, AAM 등 미래사업도 착실히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현대차는 이날 호세 무뇨스 글로벌 최고운영책임자(COO)를 신규 사내이사로 선임했다. 해외 시장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가운데 이사회의 글로벌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서다. /양성문 기자 ysw@

SK온, 생산량 약 5만톤 전구체공장 착공

에코프로·GEM과 1조2100억원 투자
새만금개발청 지원·혜택 고려해 결정

SK온과 양극재기업 에코프로, 전구체기업 중국 GEM(Green Eco Manufacture)이 참여한 ‘지이엠코리아에너지머티리얼즈㈜’는 24일 전북 군산시 라마다호텔에서 전구체 생산시설 건립을 위한 투자협약을 체결한다고 발표했다.

협약에 따라 3사는 최대 1조 2100억원을 투자한다. 2024년 완공 목표로 연간 생산량 약 5만톤 수준의 전구체공장을 연내 착공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지이엠코리아는 전구체 생산능력을 순차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며, 이를 위해 1000명 이상의 대규모 인력을 고용할 예정이다.

전구체는 양극재 원가의 65%~70% 이상을 차지하는 핵심 원료다. 니켈, 코발트를 섞은 화합물이다. 전구체 5만톤

은 전기차 30만여대 분(1대당 105KWh 기준)의 배터리에 필요한 양극재를 생산할 수 있는 양이다.

새만금공장 전구체는 인도네시아에 위치한 별도의 3사 합작법인에서 생산하는 니켈 중간재(MHP)를 원료로 사용할 예정이다. 3사는 2024년 3분기부터 연간 순수 니켈 약 3만 톤에 해당하는 MHP를 양산할 계획을 밝힌 바 있다.

3사는 새만금개발청의 지원 정책과 보조금 혜택, 수출입 관련 내륙운송 및 해운 등 물류 인프라를 비롯해 다양한 운영상의 이점을 고려해 새만금 국가산업단지에 투자를 결정했다.

최영찬 SK온 경영지원총괄 사장은 “하이니켈 개발 등 앞선 기술력을 증명해온 SK온은 이를 뒷받침 할 수 있는 원소재 공급망 강화를 통해 글로벌 경쟁력을 한층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허정윤 기자 zelkova@

윤경림 KT 차기 대표이사 후보 사의

3번 백지화 상황…리더십 공백 위기
인사·조직 개편도 큰 차질 빚을 듯

윤경림 KT 차기 대표이사 후보(사진)가 사의를 표명했다. KT 이사회는 사의를 반려하고 윤 사장을 설득했지만 23일 받아들였다.

구현모 현 대표가 차기 대표이사 최



종후보에서 직을 내려놓은 뒤 또 다시 KT 내부 출신 대표 후보가 물러난 것이다. KT 차기 리더십을 둘러싼 ‘관치’ 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윤 대표는 지난 22일 KT 최종 대표 후보에서 사퇴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했다.

KT 이사진은 대표이사 선임 절차를 다시 원점에서 추진해야 한다. 이미 차기 대표이사 후보를 3번이나 확정했다가 다시 백지화되는 상황을 맞은 것이어서 관심을 모으고 있다.

KT도 리더십 공백의 위기를 맞게 됐다. 인사 및 조직 개편에도 큰 차질이 빚어질 수 밖에 없게 됐다.

윤 사장의 사의 표명에도 KT 주주총회는 31일 예정대로 진행된다.

/채운정기자

에너지 기업 폭스웰에너지와 계약

LS전선이 대만에 1100억원 규모 해저케이블 수주에 성공했다.

LS전선은 대만 에너지 기업 폭스웰에너지와해저 케이블 공급 계약을 맺었다고 23일 밝혔다.

LS전선이 공급하는 해저케이블은 대만전력공사(TPC)가 대만 서부 해상에 건설하는 풍력단지에서 사용된다.

LS전선이 이번 프로젝트까지 수주하면서 대만 1차 해상풍력단지 건설사업 8개 프로젝트 초고압 해저케이블 공

급권을 모두 따내게 됐다. 총 계약금액은 9000억원 수준, 추가 발주도 기대된다. 또 각각의 프로젝트에서 덴마크 오스테드(Ørsted)와 CIP, 벨기에 안데룰(Jan De Nul), 독일 WPD 등 글로벌 해상풍력 사업자들과 협력을 강화, 유럽과 북미 등에서도 시장 확대를 가속화하고 있다.

대만은 2025년까지 1차 사업을 통해 5.5 GW 규모의 풍력단지를 완공하고, 2035년까지 15GW 규모를 추가 개발할 계획이다. 1GW급 원전 약 20기에 해당하는 규모이다. /김재용기자

ION SUPPLY DRINK

POCARI
SWEAT

동아오츠카



[운동기한 확인하여 식품선택 올바르게]

K-칩스법, 국회 관문 넘었다… 반도체株 ‘꿈틀’ 훈풍 부나

반도체 관련주에 다시 훈풍이 불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시장에서는 최근 반도체 업체들에게 세제 혜택을 지원한 K칩스법이 국회상임위원회의 관문을 넘은 데다 악화일로에 있던 반도체 업황도 바닥에 근접한 것으로 분석하면서 향후 반도체의 주가 전망을 긍정적으로 내다보고 있다.

23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삼성전자 주가는 전일 대비 1.96% 오른 6만2300원에 마감했다. 같은 기간 SK하이닉스는 1.84% 상승한 8만8500원을 기록했다. 최근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K칩스법(조세특례제한법)이 반도체 업체들에게 직접적인 혜택을 제공한 데다 반도체 업체들의 감산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되면서 반도체 관련주가 다시 살아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삼성전자는 3거래일 연속 상승하며 6만

KRX, 삼성전자 주가 1.96% 상승
SK하이닉스 1.84% ↑ 8만8500원

“삼성전자 보유 디램 재고 21주 상회
상황 타개 위해 감산수준 확대 예상
1분기 DS실적 바닥, 2분기 개선될 것”

선 위에서 소폭 오름세를 유지하고 있다. SK하이닉스는 2거래일 연속 오르며 87000원선에서 움직이고 있다.

특히 인위적인 감산이 없을 것이라는 입장을 유지했던 삼성전자가 실제로 반도체 생산 감산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점도 주가 상승에 대한 기대를 키우고 있다.

도현우 NH투자증권 연구원은 “삼성

전자가 감산 계획을 철회했다는 일부 언론 보도와 달리 이미 삼성전자는 상당한 규모로 감산을 진행 중”이라며 “일부 테스트 및 부품 업체에 의하면 1분기 삼성전자에서 수주한 물량이 30% 이상 감소했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삼성전자가 현재 보유하고 있는 디램(DRAM) 재고는 21주를 상회하는 수준”이라며 “이는 경쟁사와 비교

해서도 높은 수준으로 이러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삼성전자가 감산 수준을 오히려 확대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시장에서는 반도체 업체들의 실적이 1분기 바닥을 거쳐 2분기부터 개선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김광진 한화투자증권 연구원은 “삼성전자의 반도체(DS) 부문 실적은 올해

1분기를 바닥으로 2분기부터 점진적 개선을 전망한다”며 “메모리는 신규 서버용 CPU 양산 공급 본격화에 따른 수요 회복과 기존 계획 대비 하향 조정된 공급 증가율을 기반으로 2분기부터 출하량의 증가, 가격 하락 압력 완화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외에도 전문가들은 미국이 지난 21일(현지시간) 반도체 지원법 가드레일 조항의 세부 규정을 발표한 것도 반도체 관련주 주가 움직임에 호재로 작용할 것으로 평가했다.

도현우 연구원은 “중국 팹에서 5% 수준의 증산은 허용했다”면서 “공정 전환으로 인한 생산능력(Capa) 감소를 감안했을 때, 팹의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는 수준의 업그레이드가 가능하다는 측면에서 최악의 규제는 아니라고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원관희 기자 wkh@metroseoul.co.kr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신고대행

올 스팩합병기업 16곳… 옥석가리기 심화

한국거래소, 공모가 하회 종목 속출
수요예측 실패에 상장 철회 스팩도
증시부진·심사강화에 투자심리 위축

올해 스팩(SPAC·기업인수목적회사) 합병 상장을 택하는 기업이 역대 가장 많을 것으로 전망된다. 단, 공모가를 하회하는 종목이 속출하고, 수요예측 실패로 상장 철회가 이뤄지는 등 옥석가리기가 심화되는 분위기다.

23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올해 스팩 합병을 통한 상장을 완료했거나 승인을 추진하는 곳은 총 16곳으로 집계됐다. 이미 합병한 기업은 5곳이며, 현재 11개사가 거래소 심사를 기다리고 있거나 심사 승인을 받고 상장 준비 중이다. 스팩 합병 상장사 수는 ▲2021년 15곳 ▲2022년 17곳으로, 아직 3월인 점을 감안했을 때 올해 스팩 합병 상장 기업은 역대 최다를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

스팩은 일종의 ‘페이퍼 컴퍼니’로 발행주식을 공모한 뒤 그 자금으로 비상장사를 인수·합병(M&A)하는 것을 유

일한 사업목적으로 하는 회사다. 상장 스팩은 상장한 지 36개월 안에 실재하는 기업과 합병해야 한다.

만일 스팩이 합병에 실패하더라도 공모가와 연평균 1.5% 수준의 이자를 돌려주고 청산돼 투자자들에게 비교적 안정적인 투자처로 꼽힌다. 기업 입장에서 지분 희석을 최소화할 수 있고, 증시 불확실성이 커진 상황에서 안정적으로 코스닥 시장에 입성할 수 있다.

반면, 올해 상장한 종목 중 일부가 공모가를 하회하는 등 종목별 차별화가 이어지고 있다. 상장 종목은 지난 22일 종가 기준 ▲미래에셋드림스팩1호 9450원 ▲유안타제12호스팩 2015원 ▲삼성스팩8호 9790원 ▲하나26호스팩 2000원 ▲엔에이치스팩28호 2085원 ▲미래에셋비전스팩2호 2050원 ▲유안타제13호스팩 1995원 등이다.

미래에셋드림스팩1호는 지난 2010년 국내에 스팩 제도가 도입된 이후 상장 종목 중 가장 큰 700억원 규모를 내세웠다. 그러나 이달 초 진행된 최종정

약경쟁률이 0.46대 1로 집계되며 부진한 행보를 보였다. 수요예측 실패에 상장 철회를 한 스팩도 등장했다. KB스팩24호는 공모금액 400억원 규모였으나, 지난 9일 기관 수요예측에서 부진한 성적을 거두자 상장을 철회했다.

증시 부진에 따라 시장 상황이 불안한 데다 최근 금융당국이 스팩 증권신고서에 대한 심사를 강화하겠다고 나서자 투자심리가 위축됐다는 평가다. 설립에서부터 경영, 합병까지 주관하는 증권사 등 스폰서들이 합병 성공을 우선시하며 기업 가치에 대한 평가를 소홀히 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스팩 합병이 반드시 높은 수익으로 연결되는 게 아니고 합병이 성사돼도 투자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며 “투자자들은 합병가액 산출 근거와 합병 자문인의 과거 자문 내역, 합병 후 주가 현황, 기관투자자들의 의견권 비율 등을 합병신고서 등을 통해 꼼꼼히 확인하고 결정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박미경 기자 mikyung96@

다올금융그룹 다올인베스트먼트 매각

다올금융그룹이 계열회사 다올인베스트먼트 매각을 완료했다. 우리금융지주는 23일 다올인베스트먼트 인수를 위한 잔금 전액을 납입했다.

다올금융그룹과 우리금융지주는 지난 2월 주식매매계약서(SPA)를 체결한 후 금일 최종적으로 다올인베스트먼트 지분 52%에 대한 매매금액 2125억원이 납입 완료됨에 따라 거래가 종결됐다.

이번 거래 종결로 다올투자증권은 2100억원 이상의 유동성자금 확보됐다.

다올금융그룹은 “다올투자증권의 재무적 안정성이 크게 향상됐고 시장 대응력도 한층 강화될 전망”이라며 “매각을 통해 확보된 자금은 사업 안정성 강화와 신성장 동력 발굴에 사용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미경 기자

KB증권 해외주식 이용고객에 무료 서비스

KB증권이 오는 4월 1일부터 해외주식 이용 개인고객을 대상으로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무료 신고대행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23일 밝혔다.

해외주식 매매로 발생한 손익 합산금액이 연간 기본공제액인 250만원을 초과하는 투자자는 양도소득세(22%) 과세대상자가 되어 매년 5월, 연 1회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하지만, 많은 해외주식 투자자들이 양도소득세 신고·납부의무를 인지하지 못하거나 신고·납부절차에 대해 어려움을 느끼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에 따라 KB증권은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무료 신고대행 서비스를 실시한다. KB증권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무료



/KB증권

신고대행 서비스는 KB증권 해외주식 이용 개인고객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 접수기간은 4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다. 가까운 지점에 내방해 서비스를 신청할 경우 타 증권사 보유 계좌도 함께 신고할 수 있다. /박미경 기자

이베스트증권 작년 부과대상 고객, 홈페이지 접수

이베스트투자증권이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무료 신고대행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베스트투자증권은 세무법인과 제휴해 고객의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신고를 대행하고, 납부 세액을 이메일로 통지해 주는 서비스를 시행 중이다.

이베스트투자증권 계좌를 보유하고, 2022년에 해당 계좌 거래를 통해

양도소득세 부과 대상이 된 고객이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신청 기간은 5월 12일까지이며, 이베스트투자증권 홈페이지, HTS, MTS에서 접수 가능하다.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는 한해 동안 발생한 해외주식 매매차익이 250만 원을 초과할 경우 22% 세율로 부과된다. 신고 및 납부 기간은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다.

/박미경 기자

NH투자, 프리미어 블루 CEO 포럼 개강

‘새로운 시대의 투자와 직관’ 특강

NH투자증권이 2023년도 ‘프리미어 블루(Premier Blue) CEO 포럼’을 개강했다고 23일 밝혔다. 프리미어 블루 CEO 포럼 개강식은 22일 서울 파르나스 호텔에서 CEO(최고경영자) 고객들을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정영채 NH투자증권 사장이 개강 축사를 맡았다.

프리미어블루CEO의 개강식에서는 김광석 한양대학교 교수가 ‘새로운 시대의 투자와 직관’이라는 주제로 특강을 진행했다. 이후 매일 진행되는 포럼에서는 기업 의사결정에 필요한 경제, 금융 트렌드뿐 아니라 리더를 위한 인문교양 강화와 일상생활 속 교양 강의를 통해 다양한 경제 인사이트를 전달



정영채 NH투자증권 사장이 지난 22일 서울 파르나스호텔에서 열린 프리미어 블루 CEO 포럼 개강식 축사를 하고 있다. /NH투자증권

할 예정이다.

전체 특강은 7개월 과정이며, 회차마다 3부 강의로 진행된다. /박미경 기자



을 목적으로 만들어진 제도로, 3~5년 동안 매년 최대 600만원을 납입하면 납입금의 40%에 대해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박미경 기자

허위 판치는 ‘중고차 시장’ 대기업 진출로 신뢰 회복 기대

지금까지 영세 개인 사업자 중심
5년간 판매량 평균 380만대 유지
소비자불만 ‘성능 불량’ 절반 차지

현대차·기아 정관변경 절차 마쳐
전용 매매센터 상반기 완공 목표
KG모빌리티도 하반기 진출 계획



서울의 한 중고차 시장.

국내 중고차 시장에 대기업들이 본격
진출하면서 지각변동이 예상된다.

그동안 중고차 판매업은 2013년 생
계형 적합 업종으로 지정되면서 영세
개인 사업자를 중심으로 시장이 형성됐
다. 하지만 정보의 불균형을 악용한 허
위 매물, 주행거리 조작 등으로 인한 소
비자 피해 사례가 잇따르면서 중고차
시장에 대한 불신이 확대됐다. 그러나
국내 완성차 업체들이 중고차 시장 진
출에 나서면서 소비자 불안감도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年 30조 중고차 시장…소비자 불안
여전

국내 중고차 시장은 연 380만여대로
매머드 시장이다.

국도교통부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중
고차 판매량은 377만대로 지난 2018년
부터 2022년까지 평균 380.2만대를 유
지하고 있다. 국내 신차 판매량이 같은
기간 평균 178만대라는 점을 고려했을
때 규모 면에서 상당히 크다고 할 수 있
다. 또 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중고
차 시장 금액 규모 추정치는 약 30조원
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중고차 시장은 몸집만 키웠을
뿐 시장의 투명성은 여전히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한국소비자연맹 보고서에 따르면 2020
~2021년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중고차 관련 소비자불만 접수는 9376건으

로 그중 ‘성능상태 불량’이 4614건
(49.2%)을 차지했다. 소비자연맹이 소비
자불만을 유형별로 분석한 결과 ‘사고이력
미고지’가 1034건(11%), ‘위약금 부과 및
계약금 환급 지연·거절’ 402건(4.3%), ‘계
약해지·해제’ 311건(3.3%), ‘고지 내용과
상이함’ 267건(2.8%) 순이었다.

정부도 소비자 피해를 줄이기 위해
중고차 시장 문제해결에 나선 상황이다.
최근 국토부는 ‘중고차 허위매물 근
절방안 간담회’를 갖고 경찰청, 지방자
치단체와 합동으로 특별단속을 실시한
다고 밝혔다. 중고차 매매업체의 30%
이상이 소재한 서울·경기·인천 지역이
조사 대상이며, 오는 5월31일까지 중고

차 허위매물 피해·의심사례를 집중 제
보받는다.

◆완성차 업계 진출…시장 투명성 기대

현대자동차와 기아가 ‘인증 중고차
사업’ 진출을 위한 정관변경을 마치고
올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중고차 사업
을 시작한다.

현대차는 23일 정기 주주총회에서 정
관 내 사업 목적에 ‘금융상품판매대리·
중개업’을 추가하는 안건을 의결했다.
이는 중고차 판매업을 위해 회사의 근
본 규약인 ‘정관’내 사업목적을 변경하
는 절차로 기아도 지난 17일 주총에서
이같은 내용의 정관 변경을 완료했다.

현재 현대차와 기아는 중고차를 적치
할 부지 확보와 인증 중고차 사업에 필
요한 전산 작업과 시스템 구축 등 사전
준비 작업을 진행 중이다. 현대차·기아
는 올 상반기 완공을 목표로 중고차 전
용 매매센터를 짓고 있다.

특히 현대차·기아는 성능과 품질 검
사를 끝낸 자사 브랜드 중고차로 소비
자들의 신뢰를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5
년·10만km 이내 자사 차량을 대상으로
200여개 정밀한 성능 검사와 수리를 마

친 차량을 판매한다.

또 대기업의 골목상권 침해라는 기존
중고차 업계의 반발을 감안해 진출 초
기에는 자체적으로 판매대수를 제한해
이를 유지할 방침이다.

KG모빌리티(구 쌍용차)도 중고차
시장 진출에 드라이브를 건다. KG모빌
리티의 인증 중고차 사업은 5년·10만k
m 이내의 KG 모빌리티 브랜드 차량을
매입해 성능 검사와 수리를 거쳐 품질을
인증한 중고차를 판매하는 사업이다.
올해 상반기까지 판매와 정비 조직 및
체제 등 사업준비를 완료한 후 하반기부
터 본격적으로 사업에 나설 계획이다.

업계 관계자는 “중고차 시장 규모는
크지만 피해사례가 꾸준히 지적되면서
소비자들의 불신은 사그라들지 않고 있
다”며 “현대차와 기아 등 대기업이 진출
하면서 시장에 대한 소비자들의 신뢰는
회복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하지만 중고차를 구매하는 소비자들이
저렴한 상품을 선호한다는 점에서 대기
업과 기존 중고차 시장에 대한 선호도
는 극명히 갈릴 것”이라고 덧붙였다.

/양성운 기자 ysw@metroseoul.co.kr

벤처·스타트업, 기업 평균 3배 이상 고용

전체 기업 재직 인원 2.4% ↑
같은 기간 벤처·스타트업 8.1% ↑
특히 벤처투자 기업 29.8% 증가

청년·여성 고용 변화도 눈에 띄어

지난해 벤처기업, 창업기업(스타트
업)들이 고용 창출에 큰 역할을 한 것으
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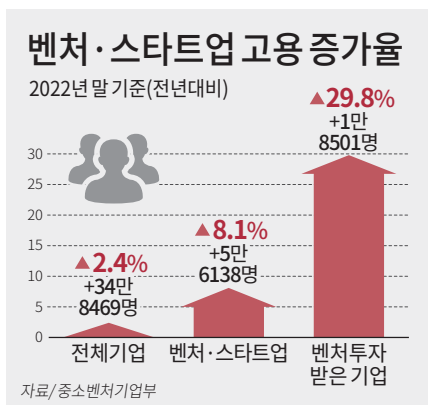
전체 기업 평균에 비해 3배 이상 고용
이 늘면서다. 특히 벤처캐피탈(VC) 등
으로부터 투자받은 기업은 12배가 늘면
서 가장 눈에 띄었다.

이같은 내용은 중소벤처기업부가 23
일 발표한 ‘2022년 벤처·스타트업 고용
동향’ 자료에서 나왔다.

발표 자료에 따르면 전체 기업의 재
직 인원은 2021년 1455만33명에서
2022년 1489만8502명으로 1년간 34만
8469명(2.4%) 늘었는데 그쳤다.

하지만 같은 기간 벤처·스타트업 3만
3045개사 인원은 68만9662명에서 74만
5800명으로 5만6138명(8.1%) 증가했다.

특히 벤처투자를 받은 2007개사는 6
만2152명에서 8만653명으로 1만8501
명(29.8%) 늘어났다. 이들 기업에 들어



간 지난해 벤처투자액만 5조7183억원
으로 이가운데 적지 않은 금액을 신규
채용에 쓴 것이다.

또 기업가치가 1조원 이상인 비상장
기업을 의미하는 유니콘기업 15개사의
고용도 1년새 22.9%(1847명)나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벤처·스타트업 청년·여성 고용도 눈
에 띄었다. 벤처·스타트업의 청년 고용
은 19만782명(2021년)에서 19만7582명
(2022년)으로 6800명(3.6%) 증가했다.

하지만 같은 기간 전체 기업의 청년
고용은 오히려 1.2%(3만475명) 감소했
다. 청년 인구 감소, 사회 진출 연령대
상승, 업종별로는 콘텐츠 및 디지털 관

련 업종의 고용증가율이 상대적으로 높
았다. 특히 영상·공연·음반 업종은 드라
마, 음악 등 K-콘텐츠의 세계적 유행으
로 최근 주목을 받으면서 전체 업종 중
가장 높은 15.4%(1764명 증가)의 고용
증가율을 기록했다. 이외에 디지털 기
술의 발달로 게임(14.9%, 1820명 증
가), ICT 서비스(12.3%, 1만9177명 증
가), 유통·서비스(10.0%, 8924명 증가)
도 채용이 많이 늘었다.

반면, 제조업 분야의 고용증가율은
전기·기계·장비(5.8%), 화학·소재
(5.0%), ICT 제조(4.3%) 등이 5% 안
팍으로 전체 벤처·스타트업의 고용증가
율(8.1%) 대비 낮았다.

이영 장관은 “고금리·고물가 등에 파
른 경기둔화와 국면에서도 벤처·스타트업
의 고용 규모는 높은 실적을 기록했고,
청년과 여성의 사회진출에도 일정부분
기여했다”고 평가하면서 “최근 미국 실
리콘밸리은행(SVB) 파산 등으로 벤처
투자시장의 위기감이 고조된 상황이지
만 우리 벤처·스타트업이 성장자금을
차질없이 공급받아 양질의 일자리를 지
속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 밝
혔다.

/김승호 기자 bada@

2024년 말까지 초고온 수소 연료전
지용 MEA와 스택의 핵심 기술 확보를
목표로 한다. 최대 온도 200도에서 작동
되는 초고온 연료전지 시스템은 100도
이하에서 구동하는 저온형 연료전지보
다 안정적이며 비용 절감이 가능하다.

연료전지가 향후 항공·선박 등 대형
이동수단의 친환경 동력원으로 활용될
가능성이 높은 가운데 수소 연료전지
기술은 친환경 모빌리티 확장을 더욱
가속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양성운 기자



시몬스, ‘N32 모션 커브드 베이스’ 출시

23일 시몬스에 따르면 신제품은 감각적
인 디자인의 프레임인 루엔2, 솔레이, 라
비에, 카누스, 테아노 등 11종과 호환 가능하도록 제작했다. N32 모션 커브드 베이스는 5개 플레
이트로 분절돼 사용자의 자세 및 수면 환경에 따라 세밀한 각도 조절이 쉽다.

/시몬스

“오늘 주문하면, 반드시 내일까지 배송”

CJ대한통운 ‘내일 꼭! 오네’ 서비스
도서산간 지역 제외한 전국서 적용

CJ대한통운이 오늘 주문하면 내일
받을 수 있는 ‘내일 도착보장 서비스’를
4월부터 선보인다.

CJ대한통운은 오늘 주문한 상품이
반드시 내일까지 배송되도록 보장하는
‘내일 꼭! 오네’ 서비스를 론칭할 계획
이라고 23일 밝혔다.

4월부터 시작하는 이 서비스는 지리
적 제한이 있는 도서산간 지역을 제외
한 전국에 적용된다.

기존의 택배서비스는 대부분 고객에
게 다음날 배송하고 있지만 판매자들의
요일별, 계절별 물량에 따라 2~3일 가
랑 소요되기도 한다. 하지만 ‘내일 꼭!
오네’는 판매자와 별도의 서비스 계약
을 통해 오늘 주문한 상품을 내일까지
확실하게 배송해주는 서비스다. 만약
내일 배송이 이뤄지지 않으면 판매자에

게 우선적으로 보상한다.

판매자가 물류 전과정을 요청할 경우
CJ대한통운이 운영하는 풀필먼트센터
에서 당일 자정까지 주문한 상품들에
대해 상품보관, 재고관리, 포장 등의 작
업을 일괄 수행 후 전국 택배 인프라를
통해 고객에게 다음날 배송한다. 반면
판매자가 CJ대한통운 풀필먼트센터에
입점하지 않고 배송과정만 맡길 경우엔
판매자와 협의한 시간에 맞춰 판매자측
에 대형 운송차량을 보내거나 집화기사
가 방문, 상품을 수거해 오는 형태로 운
영한다. 이 상품들은 새벽시간 동안 택배
허브터미널과 서브터미널을 통해 전국
각지로 이동해 다음날 고객에게 전
달된다.

회사측은 오픈마켓에 입점한 이커머
스 판매자와 일반 택배서비스를 이용하
는 판매자는 ‘내일 꼭! 오네’를 통해 사
업 경쟁력을 대폭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승호 기자

현대자동차·기아, MEA 공동개발 나서

美 ‘어드벤처 테크놀로지스’와
친환경 모빌리티 확장 가속화

현대자동차·기아가 고온형 연료전지
의 핵심 부품인 막전극집합체(MEA)
생산 업체 ‘어드벤처 테크놀로지스’와
함께 수소 사회 대중화에 나선다.

현대차·기아는 22일(현지시간) 미국

보스턴에 위치한 어드벤처 본사에서 M
EA 공동 개발 협약을 체결했다. MEA
는 수소연료전지에서 산소와 수소간 결
합을 통해 전기에너지로 변환시키는 부
품이다. 어드벤처는 미국의 수소연료전
지 전문 소재 생산 업체로, 고온형 연료
전지용 MEA 생산 분야에서 최고 기술
력을 보유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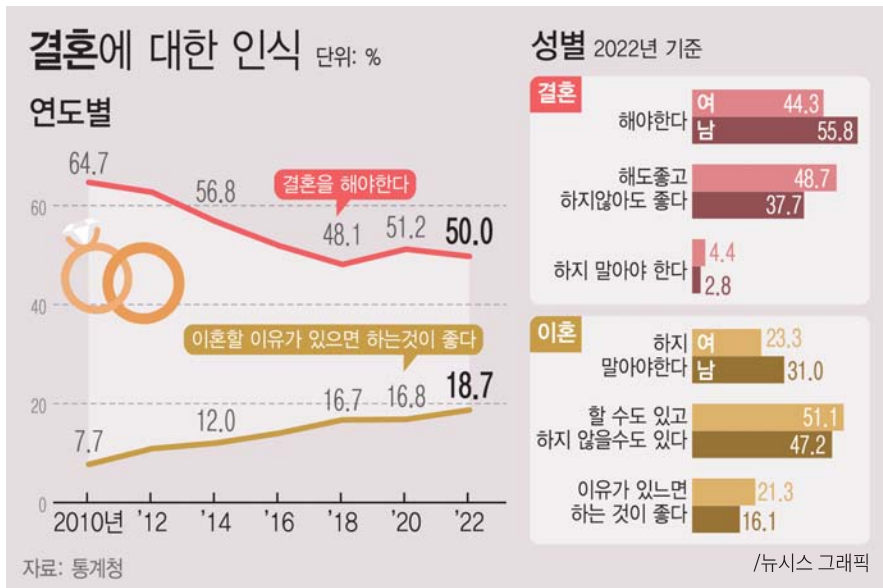
국민 절반 “결혼 안해도 돼”… 출산율 0.78명 ‘역대 최저’

1~2인 가구 늘어 평균가구원 수 ↓
부부로만 구성된 가구 증가세
10가구 중 2가구는 ‘고령층’
소득 대비 주택 가격 배율 10.1배

1~2인 가구가 늘어나면서 평균 가구원 수가 2명대 초반으로 떨어졌다. 결혼도, 자녀도 필요없다고 인식하는 국민들이 더 많아졌다. 수도권 내 주택 마련은 월급을 한 푼도 쓰지 않는다는 전제 하에 10년간 모아야 가능한 것으로 조사됐다.

통계청은 23일 이 같은 내용의 ‘2022 한국의 사회지표’를 발표했다. 이는 우리나라 사회상을 종합적으로 살펴볼 수 있는 지표로, 지난 1979년부터 작성돼왔다.

2021년 가구당 평균 가구원 수는 2.3명으로 20년 전보다 0.83명 감소했다. 1인 가구와 2인 가구의 비중은 커진 반



면, 3인 이상 가구의 비중은 줄었다.

가구 구성 형태를 보면 부부와 미혼 자녀(43.3%), 부부(26.6%), 한부모와 미혼자녀(14.6%) 등의 순이었다. 2000년 이후 부부와 미혼자녀로 구성된 가

구는 꾸준히 감소해왔고, 부부로만 구성된 가구는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가구주 연령이 65세 이상인 노인 가구는 501만6000가구로 전년보다 28만 가구 늘었다. 우리나라 전체 가구의

22.8%, 10 가구 중 2 가구는 고령층 가구라는 의미다.

결혼해야 한다는 국민들도 줄어 들고 있다. 지난해 국민 중 결혼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비중은 50.0%로 2년 전보다 1.2%포인트 감소했다. 결혼 생각은 남자(55.8%)가 여자(44.3%)보다 많았다.

결혼 후 자녀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의 비중은 65.3%로, 2년 전보다 2.7%포인트 감소했다. 이 비중은 남녀 모두 2년 전보다 줄었다. 자녀가 필요하다는 인식은 남자(69.6%)가 여자(61.1%)보다 높았다.

이혼해야 한다는 비중은 18.7%로 2년 전보다 1.9%포인트 증가했다.

이 같은 인식으로 지난해 합계출산율은 0.78명, 통계 작성 이래 최저치를 갈아치웠다. 우리나라 인구도 5163만명으로, 2020년(5184만명) 정점을 찍은 후

감소세로 전환했다.

지난해 가구당 평균 자산은 5억4772만원, 부채는 9170만원으로 각각 집계됐다. 자산에서 부채를 뺀 순자산액은 4억5602만원이었다.

2021년 소득 대비 주택 가격 배율(PRI)은 수도권 기준 10.1배로 역대 최대치를 경신했다. 수도권에 집을 사려면 월급을 한 푼도 쓰지 않고 10년 간 모아야 한다는 의미다.

국민들의 삶의 만족도는 높아졌다. 지난해 우리나라 국민 중 삶에 만족하는 사람의 비중은 1년 전보다 3.0%포인트 증가한 75.4%였다.

삶의 만족도는 여자(75.8%)가 남자(75.1%)보다 높았다. 소득 수준이 높을수록 삶의 만족도가 높았다. 40대(79.3%)가 가장 높고, 60세 이상(70%)이 가장 낮았다.

/세종=원승일 기자 won@metroseoul.co.kr

‘성심당·이성당’ 가루쌀 신제품 개발 박차

농식품부, ‘가루쌀 제품 지원사업’
유아용 쌀과자·빵·과자 연내 출시
가루쌀 ‘저당’·‘노화지연’ 연구 추진

성심당과 이성당 등 전국 2대 빵집을 포함해 식품업체 15곳이 가루쌀을 이용한 신제품을 개발한다. 가루쌀을 활용한 저당·노화지연 소재 연구개발도 추진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023년 가루쌀 제품개발 지원사업을 수행할 식품업체 15개소와 제품 19개를 선정했다고 23일 밝혔다.

가루쌀은 재배 방식이 밥쌀과 유사하지만 새로운 식품 원료로 활용될 수 있어 식량주권과 쌀 수급균형을 달성하는 수단으로 주목받고 있다. 농식품부는 식품업체가 새로운 소재를 직접 만져보고 연구해 새로운 제품을 개발할 수 있도록 이번 사업을 추진한다.

지난 1월6일~2월17일까지 진행된 사업자 공모에는 총 77개 식품업체가 108개 제품 개발을 신청해 7.2대 1의 높은 경쟁률을 기록했다. 식품 가공 및 식품 산업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는 가루쌀 원료 활용 가능성, 제품의 사업성, 업체의 제품개발역량 등을 고려해 업체와 제품을 선정했다.

선정 제품은 면류 4종, 빵류 5종, 과자류 7종, 기타 3종이다. 전국 2대 빵집으로 유명한 성심당(로쏘)은 쉬폰케이크와 식빵을 개발하고, 이성당 빵집을



미듬영농조합법인이 가루쌀로 만든 빵류 제품. /농식품부

운영하는 대두식품은 팔만주 개발에 나선다.

면류 개발에는 주요 식품업체인 농심(볶음사출면), 삼양식품(짜장라면)이 신제품 개발에 나서고, 칼국수 전문 이가자연면도 가루쌀로 만든 칼국수를 선보인다. 최근 라면시장에 진출한 하림산업도 라면 신제품을 내놓는다.

영유아 이유식 업체로 알려진 에코맘의 산골이유식은 영유아쌀빵을 만들기로 했다.

과자류 개발에는 농협경제지주(현미칩), 미듬영농조합법인(물드과자), 풀무원(고단백스낵), 해태제과(오예스), 호정식품(약과)이 참여한다. 국내 대표 제분회사인 사조동아원은 가루쌀을 제분해 이들 식품업체에 공급하고, 튀김가루 등 프리믹스 개발에 나선다.

이들 식품업체는 연내 시제품개발과 소비자평가를 완료할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이번 사업을 통해 기존 쌀 가공식품 시장의 한계를 뛰어넘어 가루쌀 소

비 저변을 넓힌다는 구상이다.

제품개발 사업과 별도로 가루쌀의 식품 원료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연구개발 사업도 추진한다. ‘저당 쌀가루 이용기술(한국식품연구원 주관)’과 ‘쌀가루 노화 지연소재(전남대)’ 개발에 신세계푸드, CJ제일제당 등 식품업체 5곳과 경희대, 가천대 등이 참여해 현장 맞춤형 기초연구가 이뤄질 전망이다.

제품개발지원 사업과 연구개발사업의 원료인 가루쌀은 대규모로 건식 제분한다. 가루쌀은 물에 불리지 않고도 우수한 품질의 가루를 낼 수 있어 건식으로 대규모 제분이 가능해 환경친화적이며 제분 비용이 상대적으로 낮다.

전한영 농식품부 식량정책관은 “가루쌀 제품개발 사업은 식품업체의 가루쌀 원료 활용 확산에 마중물 역할을 하는 동시에, 소비자 수요에 맞는 가루쌀 제품 확산의 계기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세종=한용수 기자 hys@metroseoul.co.kr

중진공, 친환경 생태계 강화 등 3대 전략 목표

‘2023년 ESG 기본계획’ 확정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2023년 제1차 ESG 경영위원회를 열고 올해 ESG 기본계획을 확정했다.

중진공 ESG 경영위원회는 위원장인 김학도 이사장을 포함한 내부 임원 3명과 ESG분야 외부전문가 4명 등 총 7명의 위원으로 구성됐다.

중진공의 ESG 컨트롤 타워로서 지난해 3월 출범해 ESG 경영 관련 주요 의사결정과 자문 역할을 수행해 오고 있다.

23일 중진공에 따르면 이날 오전 서울 목동 중소기업유통센터에서 올해 처음 연 위원회에서 정부의 2023년 경제정책방향, ESG 인프라 고도화 방안 등을 반영하고 기관의 전략방향과 연계하여 수립한 중진공 ESG 전략체계와 기본계획을 확정했다.

‘중소벤처기업과 함께 지속가능한 미래가치 창출’을 ESG 비전으로 제시한 중진공은 ▲혁신을 통한 친환경 생태계 강화(E) ▲국민과 함께하는 사회적 책임 이행(S) ▲국민에게 신뢰받는 투명경영 체계 확립(G)의 3대 전략목표에 따라 12개 전략과제를 중점 추진할 계획이다.

12대전략과제는 환경경영, 탄소중립, 인권, 안전, 상생협력·동반성장, 반부패·윤리경영, 현장소통 등 기관 자체 ESG 경영 실천을 위한 9개 전략과제와 ESG 역량·인식 제고, 탄소중립 지원,

친환경·녹색산업 육성 등 중소벤처기업의 ESG 경영을 지원하는 3개의 전략과제로 구성돼 있다.

특히 작년 11월 첫 발행에 성공한 녹색채권의 발행을 정례화해 조달된 재원으로 저탄소 신산업 육성, 그린기술 사업화, 저탄소·친환경 시설투자 지원을 확대하는 등 녹색금융 활성화에 나설 계획이다.

중소벤처기업 ESG 경영 지원 선도기관으로서 글로벌 환경 규제와 공급망 실사 대응을 위한 지원도 강화한다. 협력사 ESG 관리에 애로가 있는 모기업과 협업해 ESG 특화지표 개발을 지원하고, 협력사를 대상으로 ESG 자가진단과 심층진단을 통해 도출된 개선 과제에 따라 필요한 후속 연계지원을 제공하여 ESG 경쟁력을 높인다.

중진공은 이날 확정된 ESG 경영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내실있는 ESG 경영 활동을 차질 없이 이행하고 ‘중소벤처기업의 혁신성장 선도 플랫폼’으로서 ESG 경영 지원 역할을 더욱 강화해 경제위기 극복과 지속가능한 미래성장 기반 구축에 기여해 나갈 계획이다.

김학도 이사장은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우리 기업들이 ESG 경영과 탄소중립 전환을 통해 경제구조 전환의 주역으로 성장하도록 맞춤형 지원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승호 기자

농식품부, 배수개선 대상 128개 지구 선정

농경지에 배수장·배수문 설치

농림축산식품부는 농경지의 침수피해 예방을 위한 배수개선사업 신규로 128개 지구(기본조사 73, 착수 55)를 선정했다고 23일 밝혔다. 배수개선사업은 지대가

낮거나 하천변에 위치해 상습적으로 침수피해가 발생하는 농경지에 배수장·배수문을 설치하고 배수로를 정비하여 농작물 침수피해를 방지하는 사업이다.

올해 배수개선사업 신규로 선정된 128지구(1만1000ha)는 매년 침수피해

를 겪어 농업인들의 지속적인 민원이 발생한 지역으로 여의도 면적(290ha)의 약 40배에 달하는 크기이다.

농식품부 전한영 식량정책관은 “배수장·배수로 등 침수피해 방지에 필요한 시설을 적기에 지원하여 다양한 작물 재배가 가능하게 하여 식량자급률을 높일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세종=한용수 기자 hys@

농식품부, 지방함량 기준 마련

농림축산식품부가 최근 지방이 많은 돼지고기 삼겹살이 유통돼 논란이 된 것과 관련, 지방함량 표시를 하게 하는 등 가공·유통 전과정에서 품질관리를 강화한다.

농식품부는 23일 과지방 삼겹살 판매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돼지고기 가공

·유통업체, 브랜드 업체 등과 함께 품질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이를 위해 정형 기준 준수, 과지방 부위 제거, 검수 등을 위한 품질 관리 매뉴얼을 제작·보급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협력하여 가공·유통업체의 품질 관리 실태에 대한 점검·감독을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

/세종=원승일 기자 won@

(baby
bear
muu)

3 yrs old
love baking!
(forest bakery)
chef.



무우우 [muu]

놀이공원 기념품샵에서 발견된 아가곰 인형.
같은 이름을 가진, 똑같이 생긴 친구들이 많아요.
사람들 사이에서는 이렇게 생긴 곰인형을 모두
무우우라는 이름으로 부르고 있어요.



라이프스타일 브랜드 [후카후카스튜디오] 에서 다양한 귀여움을 만나보세요!

인스타그램 @hookka.hookka.studio

공식 홈페이지 ddada.kr

후카후카스튜디오



공식홈페이지 구경하기 ▼



지난해 수능 수준 출제... 국어 ‘선택’, 수학 ‘공통’ 중요해져

첫 전국연합학력평가

고3 첫 통합수능... 체감 난이도 ↑
영어, 지문·어휘 등 고난이도 유지
“유형분석 통해 학습방향 설정 해야”

대입 전략의 ‘나침반’으로 불리는 3월 학력평가가 23일 실시됐다. 국·영·수 모두 지난해 수능과 비교해 평이한 난이도로 출제됐지만 통합수능 체제를 처음 경험하는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에게는 체감상 난이도가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임성호 종로학원 대표이사는 “고3 학생들 입장에서 오늘 시험은 통합수능 형태의 첫 시험이기 때문에 어려운 시험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국어 영역과 수학 영역은 공통과목의 중요도에서 차이를 보였다. 국어 영역은 선택과목의 난이도 격차가 생기면서 집중도가 올라간 반면, 수학 영역은 선택과목의 난이도가 평이해 공통과목에서의 집중 분석이 당부되고 있다.

국어 영역 공통과목은 1번부터 17번까지 독서 파트, 이어 문학에서 17문제를 배치했다. 독서에서는 지문의 정보량



2023년 3월 첫 전국연합학력평가가 실시된 23일 오전 서울 광진구 광남고등학교 3학년 교실에서 학생들이 1교시 국어영역 시험을 준비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이 많아 시간이 부족했을 것으로 추정했다. 10번부터 13번은 법률 관련 지문이었으며, 14번부터 17번은 과학기술 지문이 들어갔기 때문이다. 18번부터 34번까지의 문학 파트도 EBS 교재와 연계된 작품 없이 낯선 작품 위주로 출제돼 시간 배분에 난항이 예상됐다. 다만 이투스에듀는 문제 유형 자체는 기존 수능이나 모의평가와 유사했기 때문에 난이도 자체가 높지는 않다고 설명했다.

선택과목은 화법과 작문, 언어와 매체가 각각 11문제씩 35번부터 45번까지 구성됐다. 종로학원은 선택과목에서

‘언어와 매체’가 ‘화법과 작문’에 비해 상대적으로 어렵게 출제됐다고 평가했다. 이번 출제 패턴을 고려했을 때, 언어와매체의 표준점수가 높게 형성될 가능성이 높다는 의미다. 이에 따라 선택과목 간 점수 격차는 불가피해 보인다.

반면, 수학 영역은 선택과목보다 공통과목의 중요도가 높을 것으로 전망된다. 종로학원은 공통과목에 비해 선택과목인 미적분, 기하, 확률과 통계 전반적으로 평이하게 출제됐기 때문에 공통과목 점수가 전체 성적을 좌우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킬러문항으로는 15번과 22번이 꼽혔다. 지난 수능과 마찬가지로 귀납적으로 정의된 수열의 규칙성을 묻는 15번과 22번에 미분의 그래프 추론 문제를 출제하면서 지난 출제 기조가 유지된 모습이다. 입시 전문가들은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수능 준비를 해야 하기 때문에 이번 시험에서 중요하게 나타난 그래프 활용 능력과 기본적인 계산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노력이 중요하다고 제언했다.

영어 영역은 지난해 3월 학평·수능 수준과 유사하게 출제돼 ‘불영어’ 흐름을 유지했다. 지난해 3월의 경우 1등급 비율이 3.4%에 불과했고, 2023학년도 수능에서 영어 영역은 매우 어렵다고 평가됐기 때문에 고3 학생들의 체감 난도는 더욱 높아질 전망이다.

특히 지문의 길이가 길고 어휘 난이도가 높아 까다로웠을 수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문제 유형 자체는 신유형 없이 기존 유형에 충실하게 출제됐으며, 지문 난이도에 비해 문제 함정은 적었다. 킬러문항으로는 34번(빈칸추론), 38번(문장삽입)이 꼽혔다. 종로학원은 1등급을 목표로 하는 수험생은 4~5 문

항(빈칸추론, 문장삽입 등)의 고난이도 문제를 집중 연습하고, 2~3등급을 목표로 하는 수험생은 영어 기본기와 더불어 6~7 문항(어휘, 어휘, 함축의미추론 등)의 중간 난이도 문제를 집중 연습하는 것이 좋다고 제언했다.

3월 학평은 수능 출제기관인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아닌 서울특별시교육청이 주관하는 새 학년의 첫 모의고사이다. 따라서 실제 수능과 출제 범위나 선택과목 범위에서 차이가 난다. 과목별로 국어는 1·2학년 전 범위를 출제하며, 수학은 공통과목인 수학 I·II의 경우 전 범위를 출제하지만, 선택과목인 확률과 통계는 ‘-1. 순열과 조합’, 미적분은 ‘-1. 수열의 극한’, 기하는 ‘-1. 이차곡선’까지만 출제된다. 응시 학생 성적표는 4월 17일부터 5월 1일까지 각 학교에서 출력이 가능하다.

김병진 이투스 교육평가연구소 소장은 “이번 3월 학평과 전년도 수능 문제를 문제의 형태나 답을 찾아가는 과정을 중심으로 분석하고, 이를 중심으로 앞으로의 학습 방향을 설정해야 된다”고 제언했다.

/신하은 기자 godhe@metroseoul.co.kr

길음시장·강동역 일대 주상복합 건물 조성

서울시 정비·활성화 사업 건축안 통과
길음시장 28층, 성내동 인근 43층 건립

서울 성북구 길음시장 일대에 최고 28층짜리 주상복합 건물이 생긴다.

서울시는 지난 21일 열린 제5차 건축위원회에서 ‘길음시장 정비사업’과 ‘강동역 역세권 활성화 사업’ 건축계획안을 통과시켰다고 23일 밝혔다.

이에 따라 지하철 4호선 길음역 200m 앞 역세권에는 지상 28층, 320세대의 주상복합 건물이 들어서게 된다. 시는 올 하반기에 사업시행계획 인가를 완료할 방침이다. 저층부(지하 2층~지상 2층)에는 판매시설 같은 비주거 시설이 들어간다. 지하 1층~지상 1층에는 공공청사를 두고, 1인가구 지원센터와 공유



강동구 역세권 활성화 사업 조감도.

오피스 등 특성화 시설로 활용할 예정이다.

5호선 강동역에 인접한 강동구 성내동 19-1번지 인근에는 지하 8층~지상 43층, 5개동 규모의 주상복합 건물이 건립된다. 공동주택 294세대 1



길음시장 정비사업 조감도.

/서울시

개동과 오피스텔 4개동으로 구성된다. 천호대로와 이면 도로변 가로 활성화를 위해 저층부(지하 2층~지상 3층)에는 지역 필요시설과 상업시설이 배치된다.

/김현정 기자 hjk1@

오세훈 “장애인에 탈시설 선택권 제공해야”

(서울시장)

“자율적으로 결정하는것이 바람직”

오세훈 서울시장의 장애인에게 탈시설 선택권을 주는 게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굳혔다.

오세훈 시장은 21일(현지시간) 덴마크 코펜하겐의 장애인 거주시설 ‘무스보어바이 슈드’를 찾아 거주공간을 둘러본 뒤 “아직 장애인 예산이 충족하게 보장되지 않아 모든 것을 이상적으로 하기에는 현실적인 한계가 있지만, 장애인 본인이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가는게 제일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오 시장은 “어떤 분들은 시설에서 생활하는 것이 훨씬 더 절실할 수도 있고, 자율적이고 독립적인 생활을 하는 게 본인 의사에 맞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이날 오 시장이 방문한 ‘무스보어바이 슈드’는 발달장애와 다중장애 성인



오세훈 시장이 21일(현지시간) 덴마크 코펜하겐의 장애인 거주시설인 무스보어바이 슈드를 찾아, 관계자로부터 내부시설에 대한 설명을 듣고 있다. /서울시

을 위한 주거 및 데이케어 시설이다. 시는 오 시장이 복지 선진국인 덴마크 장애인 거주시설에서 정책적으로 참고할 부분은 없는지 집중적으로 살폈고, 어떠한 주거형태든 장애인의 자립적 생활과 지역사회 접근이 가능하도록 지원하는 것이 장애인 권리 보장을 위한 보편적인 원칙임을 재확인했다고 전했다.

/김현정 기자

의대 합격자 대부분 ‘N수생’... 절반 이상 서울·수도권 출신

고3 비중 21%, 3수·4수 이상 35%

의대 정시모집 합격자의 대부분이 ‘N수생’으로 집계됐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지난 4년간 의대에 합격한 지방 소재 고3 재학생은 100명 중 7명에 불과하다.

23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인 강득구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교육부로부터 ‘2020~2023학년도 전국 정시모집 의대 신입생 선발 결과’를 제출받아 정책연구단체 ‘교육랩공공장’에 의뢰한 수능으로 선발된 최상위 집단의 고3 학생과 N수생의 분포, 지역 분포 및 특성 등의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그 결과, 2020년 이후 4년간 의대 정

시모집 합격자는 N수생이 77.5%를 차지했다. 특히, 3수생과 4수생 이상이 35.2%를 차지했다. 반면에 고3 재학생은 21.3%에 그치고 있어 수능으로 선발하는 정시모집은 사실상 ‘N수생’을 위한 전형이라는 사실이 확인됐다.

2022학년도에 3수생과 4수생은 41.6%를 차지해 최고를 기록했으며, 2023학년도에는 29%로 줄었다. 고3 재학생은 코로나 첫해였던 2021학년도에 18%로 떨어졌다가 2023학년도에는 26%로 크게 늘었다.

전국 17개 지역의 합격자를 분석한 결과에서는 지역별로 모든 해에 ‘서울’ 소재 고등학교 출신 합격자가 압도적으로 많았다. 2023학년도에는 서울은 정

시에서 36.3%인 460명이 정시모집으로 의대에 진학했고, 4년 평균 36.7%였다.

합격자 수를 기준으로 보면 서울(36.7%)에 이어, 경기 242명(19.1%), 전북 92명(7.3%), 부산 89명(7.0%), 대구 88명(6.9%), 대전 45명(3.6%), 광주 44명(3.5%), 경남 43명(3.4%), 충남 41명(3.2%), 울산 34명(2.7%), 전남 16명(1.3%), 경북 16명(1.3%), 인천 13명(1.0%), 충북 12명(0.9%), 제주 9명, 강원 7명, 세종 4명 순이다.

한편, 이번 분석발표는 수능으로 최상위 집단을 선발하는 정시모집 의대 합격자를 정부의 공식자료를 바탕으로 분석한 첫 번째 사례다.

/신하은 기자

경기도, 응급안전안심서비스 대상자 확대

올해 말까지 3만987명 서비스 제공

경기도가 취약계층에게 응급상황 발생 시 119 연계가 가능한 응급호출기 등을 설치해 관리하는 ‘응급안전안심서비스’ 대상자를 올해 말까지 4300명 확대한다.

23일 도에 따르면 ‘응급안전안심서비스’란 독거노인이나 장애인 등 취약계층 가정에 정보통신기술(ICT) 기반의 장비를 설치해 화재·낙상 등의 응급상황 발생 시 119에 신속한 구조를 돕는 사업이다. 평소에도 시간별 활동량 감지(심박·호흡)를 모니터링하고 정기적인 안부 확인과 안전교육을 실시한다.

설치 장비로는 문 열림 센서(태블릿PC, 레이더 센서), 화재·활동량·출입문 감지기, 응급호출기 등이 있다.

도는 2012년 6364명이었던 서비스 대상자를 확대해 현재 2만 6687명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2023년 말까지 4300명을 추가해 3만 987명까지 대상자를 늘릴 예정이다.

응급안전안심서비스는 2022년 한 해에만 3243건의 실제 응급상황을 119와 함께 파악해 피해를 최소화했으며, 6만 8482건의 긴급호출을 처리하는 등 대상자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고 있다.

/수원(경기)=김대의 기자 dykimi@

‘뜨아·아아’ 취향대로 선택… ‘4000억 캡슐’ 시장 도전장

〈뜨거운 아메리카노·아이스 아메리카노〉

동서식품 ‘맥심 카누 바리스타’
50여년 기술력·전문성 바탕
한국인 선호 아메리카노 구현

‘트라이앵글 탬핑’ 퀄리티 유지
원두 9.5g, 시중용량의 1.7배

홈카페 문화의 확산과 함께 빠르게 간편하게 원두커피를 즐길 수 있는 캡슐커피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동서식품이 캡슐커피 브랜드 ‘맥심 카누 바리스타(Maxim KANU BARISTA)’를 선보였다.

국내 캡슐커피 시장의 규모는 2022년 기준 4000억원 이상으로 추정된다. 카누 바리스타는 동서식품이 50여년간 쌓아온 커피 제조 기술력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기존 에스프레소 위주의 캡슐커피가 아닌 한국인이 가장 선호하는 아메리카노의 맛과 용량을 구현했다.

카누 바리스타 커피머신은 ‘카누 바



동서식품이 맥심 카누 바리스타를 출시했다.

/손진영 기자 son@

리스타 어반’과 ‘카누 바리스타 브리즈’ 2종으로, 전문 바리스타의 커피 추출기술을 그대로 구현한 것이 특징이다. 추출 전 분쇄 원두가 일정한 밀도로 평평하게 자리 잡도록 원두를 다지는 바리스타의 탬핑 테크닉을 구현하기 위해 특허 받은 ‘트라이앵글 탬핑’ 기술을

적용해 항상 일정한 추출이 가능하고 커피의 향미와 퀄리티를 균일하게 유지해준다.

또한 ‘골든 에센스’라고 불리는 18~22%의 황금 수율로 커피를 추출해 가장 이상적인 맛을 이끌어냈으며, 물과 에스프레소가 나오는 추출구를 나눈

‘듀얼 노즐 바이패스’ 방식을 적용해 따뜻한 아메리카노와 아이스 아메리카노 등 원하는 농도로 최상의 커피를 제조해준다.

커피 전문점에서 주로 아메리카노 커피 메뉴를 선호하는 국내 소비자들의 취향에 비해 기존 캡슐커피는 에스프레소 중심의 시스템이라 소비자들의 불편함이 있었다.

이에 카누 바리스타는 커피 한 잔을 마시기 위해 두 개의 캡슐을 사용하거나 같은 캡슐을 두 번씩 추출하는 소비자가 많다는 점에서 착안해 시중 대부분의 캡슐커피 용량 대비 약 1.7배 많은 9.5g의 원두를 담아 캡슐 하나로 풍부한 양의 아메리카노를 마실 수 있게 구성했다.

카누 바리스타 전용 캡슐은 소비자들 이 가장 선호하는 향미를 조사해 총 8종을 출시했다. ▲라이트 로스트 ▲미디엄 로스트 2종 ▲다크 로스트 2종 ▲아이스 전용 2종 ▲다카페인 등으로 구성

돼 로스팅 강도에 따른 커피의 다양한 풍미를 느낄 수 있다.

카누 바리스타 전용 캡슐커피는 알루미늄 소재로 제작돼 커피의 신선도와 향을 유지하는데 효과적이다. 또한 원두의 특징과 스카이, 오션, 스노우 등 각 캡슐 제품명을 연상시키는 컬러풀한 색상 및 세련된 일러스트를 적용해 카누 바리스타만의 고급스러운 이미지를 살렸다.

동서식품은 카누 에스프레소 커피 맛을 더 많은 소비자들 이 즐길 수 있도록 타 기기 호환 캡슐커피를 함께 출시했다.

타 기기 호환 캡슐커피는 ▲라이트 로스트 ▲미디엄 로스트 2종 ▲다크 로스트 ▲다카페인 등 총 6종으로 100% 아라비카 원두를 맞춤형 로스팅해 원두별 최적의 맛과 향을 구현했다. 또한 알루미늄 소재로 제작한 캡슐에는 카누를 상징하는 블랙에 각 캡슐의 맛과 향을 표현하는 포인트 컬러를 담았다.

/신원선 기자 tree6834@metroseoul.co.kr

“아이폰 고객 모십니다”… 유통가, 애플페이 속속 도입

투썸플레이스 1300곳에 단말기 설치
SPC 던킨 등 700여개 계열사 도입
애플페이 결제시 해피포인트 자동 적립
롯데GRS 전국 1800곳서 결제 가능

간편결제 서비스 ‘애플페이(Apple Pay)’가 국내에 상륙하면서 외식업체가 앞다투어 결제 시스템을 도입하고 있다.

애플페이는 애플이 선보인 간편결제 서비스로, 출시 8년 만에 국내에서도 이용할 수 있게 됐다. 카드나 현금 없이 아이폰에 내장된 결제칩을 통해 결제할 수 있다. 결제를 위해 앱에 들어가 QR을 가동할 필요 없이 아이폰을 가져다 대면 결제가 이뤄진다. 다만 근거리 무선 통신(NFC) 카드 단말기를 보유한 매장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

간편결제 이용 고객들의 편의를 고려해 커피 프랜차이즈 업체는 보다 적



애플페이가 지난 21일부터 애플페이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게됐다. 애플페이로 결제를 진행하고 있는 모습. /손진영 기자

극적으로 애플페이를 도입하고 있다.

23일 업계에 따르면 엠즈씨드에서 운영하는 스페셜티 커피전문점 폴 바셋에서 애플페이 결제가 가능하다. 폴 바셋에서 애플페이로 결제할 경우, 아이폰 또는 애플워치를 결제 단말기 근처에 가까이 대면 비접촉식 결제가 이루어진다.

투썸플레이스는 애플페이의 간편결제 서비스 제공을 위해 전국 약 1600개 매장 중 1300여개 매장에 NFC 멀티패드 단말기 설치를 완료했으며 애플페이 사용 시 할인, 포인트 적립, 할부 등 실물카드로 누릴 수 있는 혜택도 동일하게 제공한다.

파리바게뜨, 베스킨라빈스, 던킨, 파스쿠찌 등 전국 7000여개 SPC 계열 브랜드 매장에 애플페이가 전격 도입됐다. NFC 호환 단말기를 보유한 SPC 매장에서는 애플 모바일 기기(아이폰, 애플워치 등)를 단말기에 갖다 대는 것만으로 간편 결제가 가능하다.

뿐만 아니라 오는 29일부터 SPC 매장에서 애플페이로 결제 시 SPC 통합 멤버십 서비스 ‘해피포인트’가 자동 적립된다. 현대카드 앱을 업데이트한 후, 해피포인트 멤버십과 연동만 하면 결제 시 해피포인트가 자동으로 적립되

는 방식이다.

SPC는 그간 해피페이, 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등 다양한 간편결제 서비스를 제공해 온 가운데, 이번에 애플페이까지 도입하면서 고객에게 한층 편리하고 강화된 결제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롯데GRS가 운영 중인 롯데리아, 엔제리너스, 크리스피크림도넛 등 전국 직·가맹점 약 1800개 매장에서 애플페이 결제가 가능하다.

현재 애플페이 결제 가맹점은 전국 편의점을 비롯해 커피전문점과 롯데·현대 등 백화점, 코스트코 등 오프라인 가맹점과 배달의민족, 무신사 등 웹페이지·모바일 앱 등 120여개의 브랜드에서 사용 가능하다. 편의점 이마트24를 제외하고 이마트, 스타필드, 스타벅스, 신세계백화점 등 신세계그룹 계열 매장은 애플페이 지원에서 빠졌다. /신원선 기자

대상주식회사 임상민전무, 부사장 승진

대상주식회사전략
담당중역 임상민 전
무가 부사장으로 승
진했다. 2016년 12월
전무 승진 이후 6년 4
개월만이다.



임상민 부사장은 이화여자대학교 사학과와 영국 런던비즈니스스쿨 MBA 과정을 졸업 후 유티씨인베스트먼트㈜ 투자심사부를 거쳐 2009년 8월, 대상㈜ PI 본부에 입사해 그룹 경영혁신 관련 업무를 수행했다. 이후 기획관리본부 부본부장을 거쳐 현재는 전략담당중역을 맡고 있다.

그동안 기존 계열사 흡수합병 및 사업구조 재편을 통한 경영 효율 제고, 미래 먹거리 확보, 지속가능경영을 위한 전략과제 추진, 글로벌 생산기지 구축 및 전략적 M&A 등의 성과를 내는데 공을 세웠다. /신원선 기자

파리바게뜨, 토론토에 캐나다 첫 점포

SPC, 해외국가 10번째 신규사업
연내 7개, 2030년 1000호점 목표

SPC가 파리바게뜨의 글로벌 영토
확장에 속도를 가속화한다.

SPC의 베이커리 브랜드 파리바게뜨는 22일(현지시간) 토론토에 첫 점포를 열며 본격적인 캐나다 시장 진출을 알렸다. 캐나다는 파리바게뜨가 매장을 연 10번째 해외국가로, 프랜차이즈 산업 규모가 미국에 이은 세계 2위로 알려진 영미권의 대표 시장이다. 파리바게뜨는 지난해 10월 영국 진출에 이어 캐나다까지 확장하며 북미·유럽 시장 공략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파리바게뜨는 그 동안 해외 진출 시
직영점을 먼저 열었던 것과 달리, 캐나

다에서는 첫 점포를 가맹점으로 선보였다. 미국에서 오랜 기간 가맹사업을 진행하며 노하우를 축적해왔고, 2020년부터 현지 법인을 설립해 철저히 준비한 만큼 초기부터 적극적인 가맹사업 전개를하기로 한 것.

파리바게뜨는 캐나다에 연내 7개의 추가 매장을 개점하고 2030년까지 미국, 캐나다 등 북미지역에 1000개 이상의 점포 오픈을 목표로 한다.

파리바게뜨 캐나다 1호점 ‘영앤셰퍼드점’은 토론토 중심상권인 영 스트리트에 위치한 ‘영 쇼핑센터’ 1층에 214㎡, 20석 규모로 자리잡았다. 주요 관공서와 쇼핑몰이 위치해 유동인구가 많은 상권에 위치한 만큼 제품을 빠르게 고를 수 있는 셀프서비스 방식을 적용했다. /신원선 기자

한미약품 롤베돈, 작년 美 매출 131억

파트너사 스펙트럼 “시장 호실적”

한미약품 파트너사 스펙트럼이 22일(현지시간) ‘2022년 4분기 실적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해 출시된 롤베돈이 미국에서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고 밝혔다.

23일 한미약품에 따르면, 스펙트럼은 지난해 12월 31일 기준 1011만 4000만 달러(약 131억원)의 롤베돈 매출 실적을 달성했다. 회사 경영 효율화를 통해 45% 감축한 운영 비용을 롤베돈 판매 등 핵심 비즈니스에 지속적으로 투자할 계획이다.

또 지난해 4분기 동안 70개 거래처들이 롤베돈을 구매했으며, 전체 클리닉 시장의 22%를 차지하는 상위 3개 커뮤니티 중앙 네트워크에서 롤베돈을 활용

하기 시작했다. 작년 12월에는 미국국가 종합암네트워크(NCCN)가 제시하는 열성 호중구감소증 예방 및 치료 옵션 가이드라인에 롤베돈이 포함됐다.

최근 미국 메디케어·메디케이드 서비스 센터(CMS)는 오는 4월부터 롤베돈에 대해 영구 상환 J-코드 ‘J1449’를 적용하기로 했다. 이는 롤베돈이 미국 공공보험 환급 대상 의약품 목록에 등재된 것으로, CMS 이용 환자들의 의료비 부담이 낮아지고 환급 절차가 간소화돼 롤베돈 매출 상승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미약품이 개발해 스펙트럼에 기술수출한 호중구감소증치료 바이오신약 롤베돈은 작년 9월 미국 식품의약품(FDA) 시판허가 승인을 받은 뒤 다음달인 10월 미국 전역에 출시된 바 있다. /이세경 기자 seilee@

롯데제과, 56년만에 사명 변경 ‘롯데웰푸드’로 사업 확장

롯데제과가 1967년 설립 이후 56년
동안 유지했던 사명을 ‘롯데웰푸드(L
OTTE WELLFOOD)’로 바꾼다.

롯데제과는 23일 서울 양평동 롯데제과 본사에서 진행된 정기주주총회에서 사명을 롯데웰푸드로 변경하는 안건을 의결했다. 새로운 사명은 4월 1일부로 적용된다.

새 사명인 ‘롯데웰푸드’는 제과 기업에 한정됐던 사업 영역의 확장성을 담보하고, 글로벌 종합식품기업의 정체성을 공고히 하겠다는 의지를 담았다. 롯데제과는 지난 7월 롯데푸드를 합병하며 종합식품회사로 거듭난 바 있다.

롯데푸드와의 합병을 완료한 롯데제과는 제과 사업뿐 아니라 간편식, 육가공, 유가공 등 다양한 사업 영역을 영위하고 있다. /신원선 기자

삼성전자, 4년만에 만난 협력사와 ‘상생 온기’

‘2023년 상생협력데이’ 개최
우수 성과 협력사 34개 시상
‘엠씨넥스’ 선순환 실천해
‘테스’ 생산성을 2배 향상



삼성전자는 23일 수원 라마다호텔에서 협성회 회원들과 “2023년 상생협력데이”를 개최했다.

삼성전자가 오랜만에 협력사들과 만나 상생을 약속했다.

삼성전자는 23일 수원 라마다호텔에서 협성회 회원들과 ‘2023년 상생협력데이’를 개최했다.

상생협력데이는 삼성이 협력사와 소통하고 격려하며 동반성장 의지를 다지는 자리다. 협성회 정기총회와 우수 협력사 포상 등을 진행한다. 코로나19로 열리지 못하다가 4년만에 재개됐다.

올해에는 한중희 삼성전자 부회장과 삼성디스플레이 이청 부사장 등 주요 경영진과 함께 김영재 대덕전자 대표 등 208개 회사 대표까지 220여명이 함께했다.

삼성전은 이날 지난 한해 동안 품질/생산 혁신, 신기술 개발, 기술 국산화 등에서 우수한 성과를 거둔 ▲최우수/우수 협력업체 30개사 ▲ESG 우수 2개사 ▲공정거래 우수 2개사 등 총 34개 협력회사를 시상했다.

특히 삼성전자 휴대폰의 모듈 설계 개발에 참여하고 있는 ‘엠씨넥스’는 카메라 패키징 라인과 자동 펄링 보정 기능인 OIS 공정을 자동화하는 등 원가와 생산성을 혁신적으로 개선해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2차 협력회사와의 협력을 통해 불량률을 혁신적으로 개선하며 9개 협력사의 원가 약 300억원 절감에 도움을 주는 등 상생의 온기가 하위 협력회사로 이어지는 선순환을 실천했다.

삼성전자에 반도체 설비를 납품하고 있는 ‘테스’는 반도체 설비 가동 최적화와 주요 부품 신규 개발을 통해 생산성을 2배 이상 향상시키며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삼성디스플레이에 QD재료를 납품하고 있는 한솔케미칼은 차세대 디스플레이 핵심 공정인 잉크젯(Ink Jet) 공정에 적합한 QD 재료 개발을 통해 우수한 광특성 구현과 공정 안정성 확보에 크게 기여하며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삼성전자에 TV용 SMPS(전원 공급 장치)를 주로 납품하고 있는 ‘동양이엔피’는 자체 제품에 태양광 인버터 개발, 사업장 전반에 친환경 인프라 구축 등 친환경 분야에 대한 지속 투자와 성과를 인정 받아 ESG부문 특별상을 수상했다.

협성회 회장 김영재 대표는 “글로벌 경영환경의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가운데 삼성전자와의 상생협력을 바탕으로 지속적인 혁신활동과 기술개발로 위기를 극복하자”며, “특히 AI 기반 스마트 팩토리와 저탄소 녹색 성장에 기초한 ESG 경영을 중장기 계획에 따라 치밀하게 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중희 부회장은 “세계 경제 인플레이션과 경기침체 등으로 위기가 심각한 상황이지만 명확한 전략 아래 함께 철저히 준비해 나간다면 큰 기회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재웅기자 juk@metroseoul.co.kr



LGU+, 자녀 독서습관 ‘동화유학 캠페인’

LG유플러스의 영유아 전용 콘텐츠 플랫폼 ‘아이들나라’가 자녀 독서습관을 기를 수 있는 ‘동화유학 캠페인’을 23일부터 6월 21일까지 진행한다. ‘동화로 유학을 떠나다’는 의미를 담은 캠페인은 ‘지금 아이를 동화 속으로 보내세요’라는 슬로건을 바탕으로 동화를 활용한 육아 방법을 제시한다.

/LG유플러스



담채, 24년 연속 김치냉장고 1위

위니아 담채가 24년 연속 김치냉장고 최고 브랜드임을 확인했다. 위니아는 담채로 한국능률협회컨설팅(KMAC) 주관 ‘2023년 한국산업의 브랜드파워(K-BPI)’에서 김치냉장고 부문 1위 브랜드에 선정됐다고 23일 밝혔다.

/위니아 담채

하이트진로, 깨끗한 바다 만들기 앞장

제주도 표선해변 일대 환경정비

하이트진로는 전날 ‘세계 물의 날’(3월 22일)’을 맞아 제주도 서귀포시 표선면에 위치한 표선해변 일대 환경정화활동을 실시했다고 23일 밝혔다. 하이트진로는 2020년부터 표선해변을 반려해변으로 선정, 지속적인 정화활동을 하고 있다.

하이트진로 제주지점 임직원들은 표선해변 일대 쓰레기를 총 220kg 수거했다. 이날 수거된 쓰레기의 양은 향후 국내 해변 폐기물 수집 데이터로 활용된다.

하이트진로는 올해 반려해변 사업 4년차를 맞아 다양한 활동을 계획 중이다



하이트진로 제주지점 임직원들이 지난 22일 표선해변 정화활동을 실시했다. /하이트진로

다. 분기별 1회 정화활동뿐 아니라 표선해변을 알리기 위한 소비자 이벤트와 해양 환경보호 인식 확대 캠페인을 펼칠 예정이다.

/신원선 기자

하림, 상생 발전 ‘프라임 대리점 전진대회’

종합식품기업 하림은 전날 정부세종컨벤션센터 대연회장에서 정호석 대표이사를 비롯한 하림 임직원과 프라임 대리점주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3 프라임 대리점 전진대회’를 진행했다고 23일 밝혔다.

프라임 대리점은 판매 실적 등 하림

자체 평가기준을 토대로 선정된 우수 대리점이다. 올해는 500여개 하림 공식 대리점 중 25개가 뽑혔다.

이번 전진대회에서는 ‘더불어 더블업’이라는 슬로건에 걸맞게 하림과 프라임 대리점의 상생 전략과 함께 매출 증대 방안이 논의됐다.

/신원선 기자

오뚜기, ‘푸드 에세이 공모’ 접수 1000편 돌파

수상자 5월 5일 홈페이지 발표

㈜오뚜기가 진행하는 ‘오뚜기 제3회 푸드 에세이 공모전’이 접수 시작 후 35일만에 1000편을 돌파하면서 화제를 모으고 있다.

올해로 3회째를 맞은 ‘오뚜기 푸드 에세이 공모전’은 음식에 관한 따뜻한 이야기를 발굴해 가족 사랑 ‘스위트홈’을 추구하겠다는 취지로 마련됐다. 가족 또

는 친구와 맛있는 음식을 먹으며 함께 즐겼던 순간, 음식으로 인해 변화된 가족의 일상 등 다양한 음식과 관련된 경험이나 추억을 자유롭게 서술하면 된다.

접수 기간은 4월 3일 오후 6시까지로 공모전 공식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접수와 우편 접수 모두 가능하다.

/신원선 기자 tree6834@



하우스룩, ‘한국우수상품전’ 참가

하우스룩은 오는 28일 태국 방콕에서 열리는 한국우수상품전에 참가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코트라가 국내 기업에 대해 동남아 시장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준비됐다. 쇼케이스 형식으로 혁신산업과 소비재 등 국내 100개사가 참석할 예정이다.

/하우스룩

HK이노엔 ‘잔반 없는 날’… 친환경 ESG 앞장

HK이노엔(HK inno.N)이 충청북도 청주 오송 본사에서 음식물 폐기물 저감을 위한 친환경 캠페인을 진행한다고 23일 밝혔다.

매년 음식물 폐기물의 배출량과 환경처리비용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가운데, HK이노엔은 ESG경영의 중점영역인 ‘자원순환’ 항목 중 폐기물 저감 활동의 일환으로 ‘잔반ZERO(제로)’ 캠페인을 기획했다.

‘잔반ZERO(제로)’ 캠페인은 오송

본사 내 구내식당의 잔반을 줄이는 활동으로, 매월 셋째 주 화요일을 ‘잔반 없는 날’로 지정하여 정기적으로 진행된다. 식당 입구와 출구에 캠페인을 알리는 배너를 설치해 임직원들의 참여를 독려하고, 일부 임직원들은 캠페인 문구가 적힌 어깨띠를 메고 캠페인에 동참하면서 음식물 폐기물을 절감해 탄소배출을 줄이자는 메시지를 전할 계획이다.

/이세경 기자 seilee@



키움증권, 메인스폰서십 연장계약

키움증권은 서울하이퍼로즈와 서울 고척스카이돔에서 메인스폰서십 연장계약을 체결했다고 23일 밝혔다. 지난 2019년부터 2023년까지 5년간 첫 번째 메인스폰서십 계약을 체결한 키움증권과 서울하이퍼로즈는 계약 마지막 해를 앞두고 5년 연장 계약을 체결하며 2024년부터 2028년까지 동반자 관계를 이어가기로 합의했다.

/키움증권

오늘의 날씨

3월

24일(금)

음력: 2월 3일

수도권 날씨

5 ~ 16°C

운동 지수

빨래 지수

세차 지수

외출 지수

해돋이 06:31 | 해질 18:47

백령도 3/5

파주 0/16

인천 4/13

수원 5/15

평택 1/15

연천 -1/17

동두천 1/18

가평 2/17

서울 5/16

양평 1/17

용인 5/15

·자료제공: KWeather 케이웨더(주) www.kweather.co.kr

인사

◆산업통상자원부 △혁신행정담당관 기술서기관 김종연

◆조선일보 △논설실 △논설위원 박중세 △논설위원 이하원 ◇편집국 △디지털 총괄 에디터(부국장) 안덕기 △편집국 에디터(부국장) 박은주 △경제담당 에디터(부국장) 조형래 △편집국 선임기자 김윤덕 △경제부 선임기자 이진석 △사회정책부 선임기자 김덕한 △스포츠부 선임기자 강호철 △경제부장 나지훈 △산업부장 이인열 △사회정책부장 안용현 △국제부장 김신영 △문화부장 이한수 △스포츠부장 이위재 △주말뉴스부장 박동규 △여론독자부장 어수웅 △테크부

장 박건형 △사회부장 최재혁 ◇경영기획본부 △경영기획부장 이길성

부음

▲함정숙씨 별세, 임훈(후지필름 코리아 사장)·미라·선희·미경씨 모친상 = 23일, 한림대성심병원장례식장 특 1호, 발인 25일 오전 7시, 장지 성남영생원 -> 분당 메모리얼파크 ☎031-382-5004

▲박대중 씨 23일 별세. 한문선 씨 남편상, 박기용(영화진흥위원회 위원장) 기속 주희 씨 부친, 김노수 씨 장인. 빈소 강남세브란스병원 장례식장 3호실, 발인 25일 오전 6시. 장지 국립현충원. 02-2019-4000.



제주항공, 저비용항공사 부문 1위

제주항공이 한국능률협회컨설팅(KMAC)이 주관하는 ‘제25차 한국산업의 브랜드파워(K-BPI)’에서 저비용항공사(LCC)부문 1위로 선정됐다. 지난 2015년 첫 수상 이후 9년 연속 1위 자리를 수성 중이다. 제주항공은 이번 브랜드파워 조사에서 K-BPI 총점 695.1점을 기록해 2위 총점 484.8점과 큰 격차를 벌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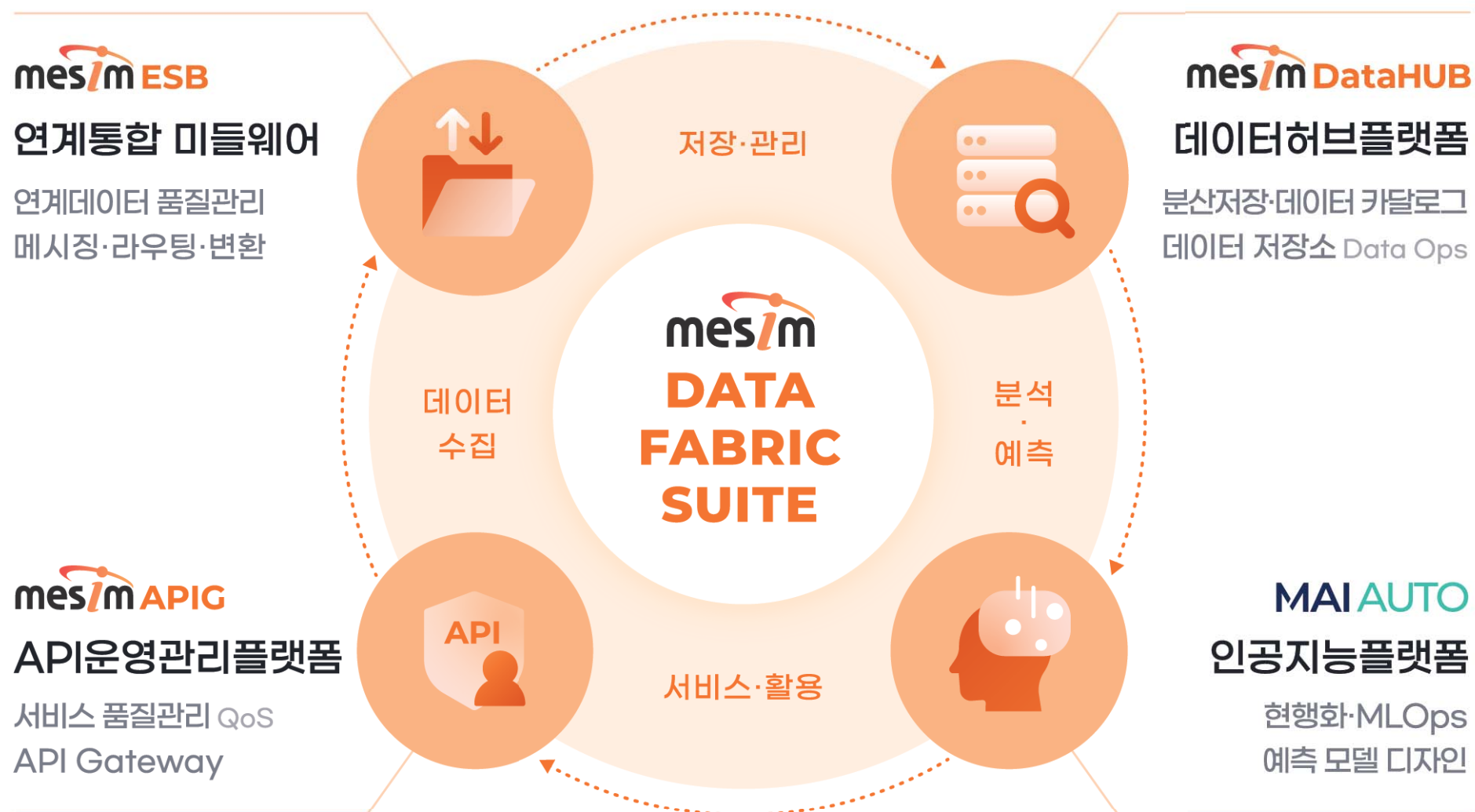
/제주항공

데이터 연계통합(ESB/IoT/망간) SW 3,000여 기관 공급
최고 품질·성능·실적·기술



DX 및 지속가능 데이터 수집·분석·활용을 위한 Data end2end 기반 핵심기술

DATA FABRIC SUITE



#국민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 수급대상 예측 서비스 #한국도로공사 디지털트윈기반 교통상황시스템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마이데이터 서비스 중계기관 시스템 #인천국제공항공사 항공교통 빅데이터 분석 표출 시스템
#행정안전부 공공부문 마이데이터 유통체계 #한국과학기술연구원 감염병 대응 코로나19 빅데이터 플랫폼 및 센터 등

‘제2 리먼사태’ 경고등



이 정 혁
西村브리핑

16년 전의 기억은 씁쓸하기만 하다. 모든 것이 잘 돌아갔다. 2007년 당시 경제 상황은 나쁘지 않았다. 성장률 5.5%, 소비자물가 상승률 2.5%, 경상수지 118억 달러 흑자로 거시 경제 지표가 좋았다. 1인당 국민소득은 2만 달러를 넘어섰다. 종합주가지수는 처음으로 2000을 돌파했다. 원·달러 환율도 900원으로 하락(원화 가치 상승)했다.

하지만 2008년에 들어서면서 세계 경제가 아래로 미끄러지기 시작했다. 미국에서 신용등급이 낮은 저소득층의 주택담보대출과 관련된 신용 파생상품이 부실해진 것이 뇌관이 됐다. 금융기관의 부실 규모가 커지고 그 해 9월 리먼브러더스의 파산으로 금융 위기가 본격화했다. 선진국 금융기관들이 자금을 회수하면서 금융 위기가 전 세계로 파급됐다. 실물 경제에도 영향을 미쳐 세계 무역량이 줄면서 전 세계가 동반 침체를 겪었다.

수출 의존도가 높은 한국은 직격탄을 맞았다. 물가가 오르고 내수는 침체됐다. 성장률은 2008년 2.8%, 소비자물가 상승률

은 4.7%였고, 경상수지 흑자는 32억 달러로 급감했다. 외국인 투자자금이 빠져나가면서 원·달러 환율이 11월 1500원을 넘었다. 2009년은 경제성장률이 0.7%였다.

2023년 세계 경제는 다시 위험 요인에 직면하고 있다. 2020년 이후 세계 경제는 코로나19 팬데믹, 소비 침체,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식량과 가스 파동, 미·중 갈등, 공급망 재편 등이 겹치면서 침체를 지속해 왔다. 경기 부양을 위한 저금리 정책으로 물가가 급등하는 후유증을 치유하기 위해 각국이 긴축 정책을 펼치면서 세계 경제는 ‘온탕’과 ‘냉탕’을 오고 가는 중이다.

이런 와중에 이달 들어 미국 실리콘밸리은행(SVB) 파산에 이어 스위스에서 두 번째로 큰 은행인 크레디트스위스(CS)까지 쓰러지면서 세계 금융시장이 요동치고 있다. SVB 파산은 코로나 위기 때의 초저금리에 힘입어 급증했던 채권 등 자산 가치가 미국의 공격적인 금리 인상으로 급락하면서 일어난 후폭풍이다. CS는 SVB 등 미국 지역은행 연쇄 폐쇄 여파로 주가가 폭락하자 뱅크런이 발생하면서 파산 위기를 맞게 됐다. 스위스 최대은행 UBS가 인수하면서 급한 불은 꺾었지만 시장 불안 우려는 여전한 상태다.

국내 금융권도 술렁이고 있다. 고금리

로 인한 가계 부채 리스크와 부동산 급락, 경상수지 악화 등 가뜩이나 내수와 수출 모두 회복 사이클을 타지 못하고 있는 불안한 상황에서 SVB와 CS 사태가 터져 나왔으니 걱정이 클 만도 하다. 일각에서는 ‘제2의 리먼 사태 경고등’이라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다.

어떻게 보면 거시 지표 상으로 한국 경제는 2008년 리먼 사태 이전 때보다 더 안 좋은 상황이다. 최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2023년 한국 경제성장률은 1.6%에 그치고, 소비자물가는 3.6%로 전망했다. 올해 1월 우리나라의 경상수지는 45억 2000만 달러 적자로 집계됐다. 이는 관련통계를 작성한 1980년 이후 사상 최대를 기록한 것이다. 1인당 국민소득도 지난해 3만 2661달러로 3만 5000달러에 못미쳤다. 원·달러 환율도 1310원대를 왔다갔다하고, 코스피 지수도 2400선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2008년의 세계 경제 위기는 주요 국가들이 힘을 합쳐 무역 개방과 재정·금융 정책 공조로 타개했다. 이제는 자국 우선주의와 미·중의 패권 경쟁으로 과거와 같은 국제 협력이 쉽지 않다. 독은 한번 무너지면 막기 어렵다. 금융당국이 다양한 시나리오를 그려놓고 치밀한 대응 전략을 짜둘 필요가 있다.

/ljnh@metroseoul.co.kr

한일관계 정상화



기 지 수 첩
박 정 익
(정치경제부)

윤석열 대통령이 한일관계 개선을 위해 ‘제3자 변제’라는 강제징용 배상 해법을 결단함으로써 한일정상회담은 이뤄졌다. 양국은 정상회담을 통해 12년 만에 서틀의 교 복원, 수출 규제 해제,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정상화, 경제안보협의체 발족 등에 합의했다.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의 일본 실무 방문으로 한일관계 개선과 발전의 중요 이정표가 될 것이라고 자평했다.

대통령실이 일본 방문 성과를 연일 부각시키고 있음에도 국내 여론은 싸늘하기만 하다. 국민의 10명 중 6명은 이번 윤 대통령의 한일외교에 부정적인 입장을 피력

했다. 일본에 내준 것에 비해 성과는 미미하다는 게 국민적 공감대다.

한일정상회담 이후 오히려 일본 정치인들은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 문제를 비롯해 독도·위안부 문제 등 연일 한국의 국민 감정을 자극하는 발언을 쏟아내고 있다.

이에 대통령실은 외교당국을 통해 유감 표시와 재발 방지 요청을 했다고 밝힐 뿐, 들끓고 있는 국민의 마음을 진정시키기에는 부족해 보인다.

한일관계가 개선돼 양국 국민이 자유롭게 교류하며 사이좋은 이웃으로 지내는 것에 반대할 사람은 없을 것이다.

다만, 과거사에 대한 진정한 반성 없이, 미래로 함께 나아가겠다는 말에는 동의할 수 없다. 실제로 일본은 한일정상회담 이후에도 과거사에 대한 성의 있는 호응 조치를 보이지 않고 있다.

두 정상이 만나 ‘화합주’를 마시며 친교

의 시간을 가졌고, 일본 국민들이 윤 대통령에게 박수를 보내고 환영을 표했다는 것이 한일관계의 정상화를 뜻하지는 않을 것이다.

윤 대통령은 지난 21일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한일관계 개선에 대해 “결국 우리 국민에게 새로운 자긍심을 불러일으킬 것”이라며 “우리 국민과 기업들에게 커다란 혜택으로 보답할 것”이라고 밝혔다.

우리 국민은 35년간 일제 강점기를 지나, 한국전쟁으로 피폐해진 대한민국을 선진국 반열에 올려놓은 저력이 있다. 자긍심은 누구로부터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다.

우리 정부가 먼저 절반을 채웠다는 물건의 절반은 아직 비어 있다. 일본은 그 물건을 채우는 대신 후쿠시마산 수산물 등 청구서를 내밀었다. 오는 5월 방일에서는 윤 대통령이 일본의 더 성의 있는 후속 조치를 이끌어내길 바랄 뿐이다.

/pathfinder@

김상회의四季

토요일은 임오일



사슴과 말이 오후午火에 배당된 동물이다. 그러나 엄연히 다르다. 麋鹿은 천자天子를 상징한다. 그래서 천자의 자리를 중원지록中原之鹿이라 했다. 정권이나 지위를 얻기 위해 다툼을 이르는 말이 축록逐鹿이다. 까닭에 양중지양陽中之陽의 병화丙火는 사슴으로 비유한다. 진秦의 시황제始皇帝는 죽기 전에 장자 부소를 불러 장례식을 치르라는 조서詔書를 남겼다. 이는 후계자로 지명한다는 얘기다. 이때 환관조고는 조서를 위조하여 후궁의 소생인 호해를 황제로 만들었다.

조고는 호해를 허수아비로 만들고 승상인 이사를 처치한 다음 스스로 황제자리에서 오를 야심을 품는다. 그런데 조정의 대신들이 얼마나 자신을 지지할지가 문제였다. 어느 날 조고가 신하들 앞에서 호해에게 사슴 한 마리를 바치며 말을 헌상 한다고 했다. 그러자 호해가 농땡이 심하다며 지록위마指鹿爲馬라니… 했다. 조고는 정색을 하며 이것은 분명히 말이니 믿지 못하면 이 자리에 있는 대신들에게 물어보라고 했다. 조고를 두려워한 신하들은 말이 맞다 했고 더러는 사슴이라고 말했다.

조고는 사슴이라고 말한 대신들을 후에 가차 없이 죽였다. 그 이후에는 조정에 조고의 뜻을 거스르는 이들이 없게 됐다. 사실이 아닌 것을 사실로 만들어 강압으로 인정하게 하거나 위사람을 농락하여 권세를 마음대로 휘두를 때를 가리켜 지록위마 이록위마以鹿爲馬라 한다. 이처럼 사슴과 말은 다른 동물이지만 같은 오후午火의 의수擬獸로는 다르지 않다. 회남자淮南子에 사슴을 쫓는 사람은 토끼를 돌아보지 않고 천금의 물건을 흥정하는 사람은 푼돈을 놓고 다투지 않는다. 즉 축록자 불고토逐鹿子不顧兔란 명에나 욕심에 사로잡혀서 사람의 도리를 저버리거나 눈앞의 위험을 돌보지 않는다는 비유한 말이다.

‘김상회의 사계’에서는 애독자를 위해 전화·방문상담을 해드립니다.

김상회 역학연구원02) 533-8877 / www.saju4000.com



메트로미디어

서울시 종로구 자하문로17길 18. TEL:02)721-9800, FAX:02)730-1551

발행·편집인	이장규	편집국장	김승중
인쇄인		중앙일보(주)	
광고문의 / 독자센터	02)721-9851, 9826 / 02)721-9861		
일간 메트로	서울 가00206	2002년5월28일 제5154호	
일간 메트로경제	서울 가150111	2017년3월09일 제1258호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매일매일 두뇌트레이닝

스도쿠365

문제출제: 손호성

문제풀이방법
4X3 스도쿠는 가로·세로·3X3박스에 1부터9 ABC의 문자가 겹치지 않게 푸는 퍼즐입니다.

부동호 스도쿠는 가로·세로·3X3박스에 1부터9 숫자가 겹치지 않게 푸는 퍼즐입니다.



하루에 한 장 기적의 두뇌파를
사우라이스도쿠
손호성 저 / 스도쿠65 / 10,000원

			3		
	2			1	
	3	1	2	9	4 7
7		3		9	8
			3	7	
	4		1	9	7
	8	7	5	1	3 6
		6		7	
			7		

	4		5		1		
		5			1		2
	6			7		8	
3			9		5	6	
4							9
	9			6			3
2		4			8		
			1	4		5	

정답

8	1	9	7	9	2	6	2	8
7	2	2	8	8	6	9	1	9
6	9	8	1	2	9	2	8	7
2	8	6	9	1	8	7	9	2
2	7	9	2	9	8	8	6	1
1	9	8	2	6	7	8	9	2
9	2	7	6	8	2	1	8	9
8	6	1	9	7	9	2	2	8
9	8	2	8	2	1	9	7	6

2	9	6	7	2	1	8	8	9
9	1	8	9	8	6	7	2	2
7	8	2	8	9	2	1	6	9
6	2	8	9	1	8	2	9	7
1	7	9	2	9	8	6	2	8
8	2	9	2	6	7	9	1	8
9	8	7	6	2	2	8	9	1
2	6	1	8	7	9	9	8	2
8	9	2	1	8	9	2	7	6

고난도의 월드퍼즐을 즐겨보세요

<http://argo9.com>



포켓몬 공식 라이선스 신제품 출시!



포켓몬 맥세이프 보조배터리

강력한 맥세이프 자성! 슬림하고! 가볍다!
최대 20W 유·무선 고속 충전!



포켓몬 무선 충전 마우스패드

귀여운 피카츄 얼굴을 그대로 담은 마우스패드로
나만의 PC공간을 밝고 귀엽게 꾸며보세요!



상품문의 | 게임피아(주) 공식 온라인몰 : www.sofrano.com & TEL : 031-447-8858

※해당 제품은 한국 내 포켓몬 공식 라이선스 상품입니다.※

본 제품은 한국 내 독점적 저작권 관리자인 (주)포켓몬코리아와의 정식 계약에 의해 생산되므로 무단 복제 시 법의 처벌을 받게 됩니다.
한국 내에서만 판매 가능.

©Nintendo, Creatures, GAME FREAK, TV Tokyo, ShoPro, JR Kikaku. ©Pokémon.
포켓몬스터, 포켓몬, Pokémon은 Nintendo의 상표입니다.

GamePia

SVB 파산에 와이너리 ‘덜덜’… 美 와인업계 초비상



안 상 미 기자

Why, wine

“프리미엄 와인 부문은 작년에도 성장세를 이어갔지만 미국의 와인 소비는 전체적으로 2년째 감소세를 기록했다. 앞으로 와인 판매는 업계가 새로운 세대의 소비자에게 어떻게 다가갈 지에 달려 있다.”(SVB 미국 와인산업 현황 보고서 2023)

미국 와인산업의 위기를 논했지만 정작 자신의 위기는 보지 못했다. 파산으로 전 세계 금융시장을 뒤흔든 미국의 실리콘밸리은행(SVB) 얘기가.

SVB의 초고속 파산선언에 화들짝 놀란 곳은 IT 스타트업 뿐만이 아니었다. SVB는 무려 30년 가까이 나파밸리, 아니 캘리포니아 와인 산업의 절대적인 자금줄이기도 했다.

대응도 빠르지 못했다.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으로 퍼진 SVB 위기설에 스타트업들은 재빨리 예금 인출에 나섰지만 와인 메이커들은 SVB 신용카드와 수표로는 결제가 자꾸 거절되고, 은행 앱에 로그인조차 되지 않게 되자 사태의 심각성을 파악했다. 그제서야



미국 내 자산 16위 은행인 SVB는 대규모 예금 인출에 이달 10일 파산했다. 미국 캘리포니아 산타 클라라에 있는 실리콘밸리은행(SVB) 본사 앞에 고객들이 줄을 서 있다 /신화·뉴시스

부라부라 유통업체들에게 와인 대금을 입금하지 말라고 전화를 돌리고 수습을 하기 시작했다. SVB가 와인 사업부를 만든 것은 지난 1994년이다. 와인 산업의 잠재력을 알아본 창업자 롭 맥밀런 덕분이다. 와이너리들이 기존 은행에서는 제대로된 서비스를 받지 못하고 있는 점을 공략해 대출은 물론 시장 조사를 기반으로 한 컨설턴트의 역할까지 자처했다.

사실 와인 사업이라는 게 시간과 돈, 그리고 기다림이 필수다. 포도나무가 쓸 만해질 때까지 몇 년, 와인을 만들어 놓고도 숙성하는데 또 몇 년이다. 시간만으로도 돈을 까먹고 있는데 오크통 같은 것은 또 얼마나 비싼

지. 이렇게 돈과 시간을 들이고도 와인의 맛이 인정을 받을지는 차원이 다른 문제다. 실패한다면 이 지난한 과정을 처음부터 다시 해야 한다. 보수적이고 간간하기로 소문난 미국 은행들이 이런 사업에 쉽게 돈을 빌려줄 리가 없었다.

SVB는 달랐다. 대출을 요청한 곳이 있으면 와이너리에 함께 앉아 와인을 시음했고, 어떤 목표를 가지고 있는지 물었다. 시장 조사 내용을 공유하고, 장단기적으로 그들의 목표를 달성하는데 가장 좋은 방안이 무엇일지 같이 고민했다.

결이 다른 접근에 와이너리들은 SVB로 몰려들었다. SVB와 거래하는 와이너리만 400

여 곳에 달했으며, 이들이 그간 빌린 돈은 40억 달러(한화 약 5조원)다. 작년 말 기준으로 남아있는 대출은 12억 달러다. 미국 와인의 위상을 전 세계에 알린 ‘파리의 심판’에서 1위를 차지한 샤도 몬텔레나도 SVB의 도움을 받았으며, 많은 캘리포니아 유수의 와이너리들이 SVB의 고객이다.

맥밀런은 “우리가 와이너리에 대출을 해주고 손실을 입은 금액은 지난 30년을 모두 통틀어도 400만 달러(한화 약 50억원)에 불과하다. 이는 우리가 특별히 보수적으로 일을 해서가 아니라 와인 사업의 리스크를 누구보다 잘 이해하고, 고객들을 어떻게 도와야 할지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또한 우리는 인내심도 충분했다”고 말했다.

SVB의 와인사업부가 매년 내놓는 ‘미국 와인산업 현황 보고서’는 업계에서도 정확한 분석과 통찰로 정평이 나있었다. 포도 작황은 물론 와인생산량, 생산 원가 분석, 와인소비 트렌드 등까지 산업 전반에 대한 내용이 담겨 있다. 100페이지에 달하는 이 보고서 하나만 있으면 누구든 미국 와인산업을 논할 수 있었지만 2024년 버전은 볼 수 없을지도 모른다.

/smahn1@metroseoul.co.kr

YouTube

유튜브(메트로신문) 동영상 제공



주말은 책과 함께

고전이 전하는 경고

2013년경 등장한 ‘인간의 욕심은 끝이 없고 같은 실수를 반복한다’는 인터넷 유행어가 있다. 반짝하고 사라지는 다른 밈(유행 콘텐츠)과 달리 이 말이 현재까지도 자주 사용되고 있는 이유는 뭘까.

‘내 맘대로 고전 읽기’에서 저자가 들려주는 그리스 로마 신화 이야기를 듣다 보면 이에 대한 힌트를 얻을 수 있다. 그리스 로마 신화에서 아내인 가이아의 도움으로 신과 인간 세계의 지배자가 된 우라노스는 이 권력을 천세만세 누리길 원한다. 그런 그의 눈에 가이아가 낳은 아이들은 자신을 넘어뜨릴 적으로 보였을 터. 우라노스는 자식들의 외모가 괴물 같다는 이유로 트집을 잡아 이들을 타르타로스(지옥)에 가둔다.

가이아는 아들과 함께 우라노스를 없앨 계획을 세워 이를 실행에 옮긴다. 아버지를 제거한 크로노스는 새 시대의 지배자가 된다. 크로노스는 자신이 그랬던 것처럼 자식들이 왕좌를 빼앗을까 봐 두려워 애가 태어나는 족족 먹어치운다. 그의 아내 레아는 자식을 살리기 위해 크레타섬 동굴로 들어가 몰래 아이를 낳은 후 돌을 강보에 싸서 아기처럼 꾸민다. 크로노스는 돌을 아들로 여겨 집어삼킨다. 이때 살아남은 게 제우스다. 훗날 제우스는 아버지를 무찌르고 신들의 왕이 된다.

책은 세대를 넘어 어리석음이 이어진다는



내 맘대로 고전 읽기

최봉수 지음/가디언

사실을 짚는다. 고전에서 똑같은 가르침을 반복하는 건 인간이 어리석은 짓을 계속 되풀이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저자는 “경전에서 인간의 욕심, 욕망 때문이라고는 하지만, 인간은 불안해서 어리석은 짓을 반복하는 것은 아닐까”라면서 “분명한 건 인간의 가장 저급한 것의 하나인 배신은 적어도 욕망보다 불안과 두려움에서 출발한다. 그것도 존재하지 않는, 스스로 만들어낸 공포에서 배신이 움튼다”고 말한다. 책은 불안해하는 자의 뒤끝을, 불안해하는 표정 뒤에 감춘 비열한 칼날을 조심하라고 조언한다.

304쪽. 1만6000원.

/김현정 기자 hjk10

세습 자본주의 세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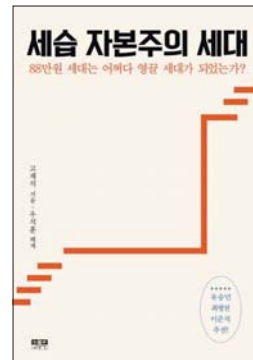
고재석 지음/우석훈 해제/인물과사상사

1980년대생은 산업화 이후 풍요 속에서 자라며 큰 꿈을 펼치란 말을 듣고 자랐다. 그러나 막상 이들이 성인이 되고 마주한 것은 잔인한 현실이었다.

20대 때는 고시원 인생, 30대 때는 월급 인생, 급기야는 울며 겨자 먹기로 영끌족이 됐다. 영혼까지 끌어모아 대출을

받아아파트를 사고 빚내서 투자할 수밖에 없었다. 노동으로 모은 종잣돈만으로 집을 살 수 없었기 때문이다.

바야흐로 세습이 아니고서는 ‘내 집 마련’이 불가능한 시대의 막이 올랐다. 책은 한국 자본주의의 우울한 민낯을 까발린다. 348쪽. 1만900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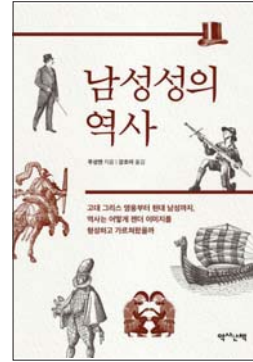


남성성의 역사

루성연 지음/강초아 옮김/도서출판 역사산책

‘남자다운 남자’라는 프레임은 시대와 문화에 따라 그 형태가 달라져 왔다. 고대 그리스·로마에서는 용맹한 영웅, 르네상스 시대엔 ‘팔방미인’, 계몽주의 시대엔 ‘젠틀맨(신사)’, 산업혁명 시대엔 ‘노동자’ 등 각 시대는 ‘이상적인 남성성’을 설정해놓고 그것을 남성들에게 주

입해왔다. 저자는 남성이 어떻게 가부장제 아래서 피해자이자 가해자 역할을 했는지 분석하고, 오늘날 사회에서 남성이 누리는 권력과 그들에게 가해진 억압이 역사적으로 어떻게 누적되고 이어져 왔는지를 설명한다. 288쪽. 1만800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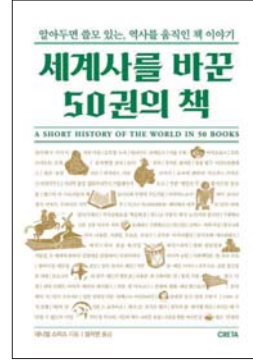
세계사를 바꾼 50권의 책

다니엘 스미스 지음/임지연 옮김/크레타

‘책 따위가 어떻게 세상을 바꿀 수 있겠어?’라고 생각한다면 오산이다. 마오쩌둥, 맥아더, 콜린 파월은 모두 ‘손자병법’의 애독자였다. 마키아벨리의 ‘군주론’은 권력을 빼앗긴 된 매디치가를 쇠신하기 위해 쓰였다. ‘옥스퍼드 영어사전’에는 2000개가 넘는 셰익스피어의 글이

인용문으로 실려있다. 영국의 대문호 셰익스피어는 1700개 이상의 단어를 새롭게 만들어냈다.

저자는 인류 역사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 책 가운데 50권을 추려 이 위대한 고전이 탄생하게 된 역사적인 배경을 설명한다. 304쪽. 1만7000원. /김현정 기자



바스타비 TV와 함께하는 메트로 뉴스

- ▲ 가수 정동원, 오토바이 불법주행 불구속 입건
- ▲ 법원, ‘도이치’ 주가조작 핵심인물 도피 도운 일당에…‘집유’



- ▲ 경찰, ‘주말 서울 도심집회’…“불법엄정대응·소음 엄격관리” /뉴시스
- ▲ 제주 성폭행 미제사건…15년만에 DNA로 발각



- ▲ 배우 유아인 측 “사실상 공개소환” 반발…경찰 출석 조정 요청
- ▲ 한국노총, 조직혁신위 구성…“신뢰 없는 투쟁 어려워” /사진 뉴시스



단지 내 조경 ▶▶



▲ 배롱나무 꽃이 심어진
여름 정원 '포시즈 가든'
◀ 단지 내 '티하우스 189'



‘인피니티풀’에서 대모산 감상 ‘개포오름’ 보며 내 집에서 휴양

아파트의 미학(美學)

개포자이프레지던스

최근 찾은 서울 강남구 개포동 ‘개포자이프레지던스’. 지난달 입주를 시작한 아파트는 수인분당선 개포동역 6번 출구에서 걸어서 약 5분 정도 걸렸다.

역세권 단지 바로 옆에는 개포초와 경기여고 등이 위치해 있어 걸어서 갈 수 있었다. 주변에는 양재천, 개포동 근린공원, 개포공원, 대모산 등이 자리 잡고 있어 입주민들이 질 높은 여가 생활을 누릴 수 있을 전망이다.

개포주공아파트 4단지 재건축 정비사업을 통해 지어진 단지는 지하 4층~지상 최고 35층, 35개동, 총 3375가구 규모의 대단지 아파트로 조성됐다. 전용면적 ▲39㎡ ▲45㎡ ▲49㎡ ▲59㎡ ▲78㎡ ▲84㎡ ▲102㎡ ▲109㎡ ▲114㎡ ▲132㎡ ▲185㎡ 등 다양한 타입으로 공급됐다.

아파트 정문에는 ‘자이(x i)’ 로고가 부각돼 고급스러운 분위기를 연출했다. 신축 아파트에 걸맞게 멋스러운 외관을 뽐내고 있는 단지는 조경 공간과 연계한 옥탑 구조물과 커튼월 마감 등 다양한 특화 설계가 적용됐다.

시공사인 GS건설은 입주민을 위해 세대 대부분을 남향 위주로 배치했고, 약 95%를 판상형으로 설계했다. 판상형 평면은 채광과 통풍에 유리해 에너지 절약에 이점이 있다. 단지에는 신개념 환기형 공기청정시스템인 시스클라인(Sys Clein)도 적용됐다.

GS건설 관계자는 “가로대와 철제난간이 없는 최신행 유리 난간 창호를 적용해 세대 내에서의 조망을 극대화했다”면서 “대지면적 중 조경면적 비율

이 약 45%를 차지하고 있어, 개포지구 내 타 재건축 단지들이 30%대의 조경면적 비율을 갖는 것과 비교해 월등히 높다”고 설명했다.

단지 곳곳에는 ‘개포자이프레지던스’만의 조경이 눈에 띄었다. 단지 중앙에는 지형 내 언덕을 활용한 ‘개포오름’이 조성됐다. 오름 옆에는 ‘티하우스 189’가 위치해 있어 입주민에게 휴게공간을 제공하고 있었다.

단지 내에는 전경이 한눈에 보이는 전망대 ‘블루라운지’를 비롯해 물소리와 대왕참나무로 둘러싸인 ‘블루오크가든’, 배롱나무 꽃이 심어진 여름 정원 ‘포시즈 가든(여름)’, 계수나무로 구성된 ‘포시즈 가든(가을)’, 잔디 공간 ‘그린갤러리’ 등이 조성돼 있어 입주민들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했다.

단지 옥상에는 국내 아파트 중 처음으로 인피니티풀이 조성됐다. 419동 최상층에 마련된 스카이라운지에 선 대모산 등 일대 조망이 가능해 자연의 아름다움을 만끽할 수 있다.

독채 형태 게스트하우스,

실내 수영장 및 체육관, 골프연습장, 악기연주실, 1인 독서실, 시네마룸 등 다양한 커뮤니티 시설도 조성돼 있었다.

단지에는 ‘정글탐험’, ‘버블돔’, ‘숲속아지트’, ‘포레스트’, ‘마운틴어드벤처’, ‘푸른바다의 고래’ 등 다양한 테마의 놀이터가 조성돼 있었다. 어린이집도 2곳이 있어 아이 키우는 신혼부부에게 좋은 여건을 제공해 주고 있었다.

단지는 자연과 더불어 살아가는 공생의 모습도 보여줬다. 연못을 만들고 수생식물과 나무를 심는 등 ‘수생 비오톱’을 조성했다.

/김대환 기자 kdh@metroseoul.co.kr

수인분당선 개포동역에서 5분거리
단지 내에 전경 한눈에 보는 ‘전망대’
대왕참나무로 둘러싸인 ‘블루오크가든’
배롱나무꽃·계수나무 ‘포시즈 가든’

버스타비 **Yap TV**와 함께하는 메트로 뉴스



▲ 日 지방선거 고시... 전체 지자체 중 28%만 동시선거 /사진 뉴시스
▲ 인도 남부 폭죽공장 폭발... 9명 사망 · 18명 부상

▲ 캐나다, 이민자 받아 저출산 해결... 1년만에 인구 100만명 급증
▲ 美 백악관 “5월 코로나 대응팀 완전 해체”... 3년만에 운영 종료



▲ 英 브렉시트 새 협정 ‘원저 프레임워크’ 하원의회 통과
▲ 佛 마크롱 “연금개혁 연말까지 시행... 인기 연연하지 않을 것” /사진 뉴시스



[라이프]
동서식품
4000억 캡슐시장
도전장
L1

metro®

Life

[라이프]
SVB파산에
美와인업계
초비상
L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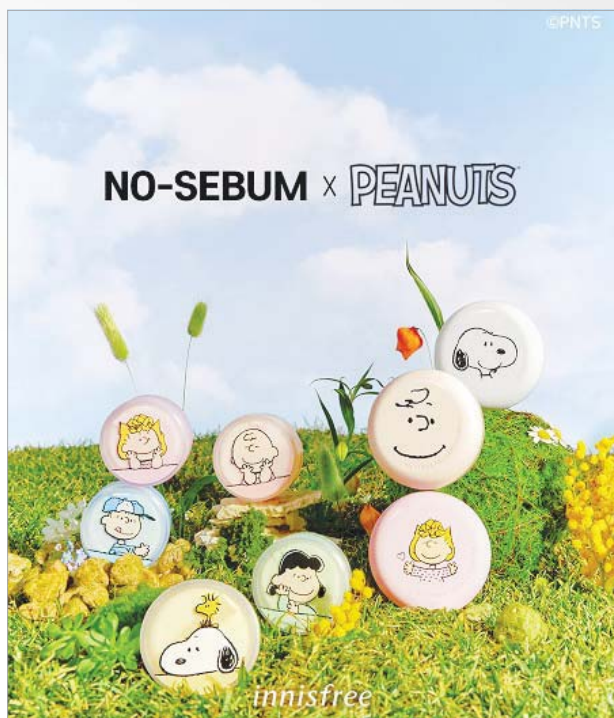


고운 입자로 유분 잡고, 켈래버로 취향 잡고 일상 ‘필수템’으로 자리잡다

메가히트 브랜드 탄생스토리

이니스프리 ‘노세범 파우더’

해외 시장에 진출하는 기업의 첫 상품은 그 회사의 시그니처 상품일 때가 많다. 기업을 확실하게 각인시킬 수 있으면서 동시에 많은 소비자의 선택을 받으며 상품성이 검증됐기 때문이다. 이니스프리가 지난 2021년 일본시장 진출에 ‘노세범 파우더’를 대표로 내세운 이유다. 이니스프리 노세범 파우더는 지난 2006년 출시된 후 전세계적으로는 7200만개 이상 판매고를 올린 초히트 상품이다. 출시 후 긴 시간이 흐르고도 노세범 파우더의 명성은 바래지 않고 분당 12개씩 판매되며 독보적인 위치를 점유 중이다. 공식 홈페이지 리뷰 개수만 해도 23일 기준 1만65750개에 달한다. 늦게서야 론칭한 이니스프리 공식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의 리뷰는 4500개 수준이다.



2006년 출시 후 7200만개 팔린 초히트 상품
유분기 제거 효과에 샴푸·기름종이 대용으로

일본서 인기상품 등극… 선크린 등 라인↑
한국 브랜드 최초 100대 베스트상품 선정도
다양한 브랜드와 협업, 켈래버 상품 선보여

노세범 파우더의 명성은 확실한 유분 컨트롤과 저렴한 가격에 있다. 유분과 피지가 과잉 분비되는 피부의 균형을 맞추고 수분감을 보호한다. 지성 피부를 가진 사람들로부터 각광 받기 시작한 후 메이크업 마무리에 안성맞춤이라는 평가까지 받으며 피부형을 불문하고 모든 세대의 남녀 모두에게 인기를 끌고 있다.

확실한 유분기 제거 효과에 한 때는 ‘앞머리 파우더’라는 별명도 얻었다. 첫 출시 후 10대 고객을 중심으로 “기름진 앞머리에 두드려 주면 기름기가 제거 돼 깔끔해진다”는 평가로 인기를 끌면서다. 그만큼 노세범 파우더는 드라이 샴푸로, 기름종이 대용으로, 메이크업 지속력을 높여주는 프라이머로, 때로는 바디 메이크업을 위한 상품으로까지 범용성이 높다. 높은 범용성과 확실한 상품성에도 정가 9000원에 불과한 저렴한 가격은 백미다.

가성비 좋은 상품이지만 상품 퀄리티는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탓에 인기 메이크업 아티스트와 뷰티 유튜버들이 애용하는 상품으로도 꼽힌다. 대표적인 노세범 파우더를 애용하는 인플루언서에는 구독자 226만 명의 뷰티 유튜버 ‘이사베’가 있다. 그는 다양한 상황에서 노세범 파우더를 활용해 아름다운 메이크업을 완성한다. 수십만 원에 달하는 초고가 화장품들과 비교해도 뒤지지 않는다는 평가다.

최근에는 ‘그루밍족’ 남성들 사이에서도 큰 인기를 끌고 있다. 다양한 콘텐츠에서 남성 인플루언서들이 매끈하고 깔끔한 마무리를 위해 노세범 파우더를 추천한다. 이에 유튜브를 포함해 다양한 채널에서 가장 인기있는 숏폼 콘텐츠에 남성 인플루언서들의 노세범 파우더 사용기가 최상단에 뜨고 있다.

‘누구나 하나씩 쟁이는 아이템’인 탓에 할인 소식이 전해지자 온라인이 들썩이기도 했다. 지난 2021년 10월 유튜브 채널 달라스튜디오가 진행한 ‘네고왕’에서 노세범 파우더가 할인 상품으로 결정되자 온라인이 들썩였다. 아직 마스크를 의무 착용해야 하는 때였음에도 불구하고 구매하고자 하는 고객들로 한동안 온라인 자사몰에 접속이 안 되는 상황까지 벌어졌다.

상품성은 해외에서도 인정받았다. 대표 상품으로 진출한 일본에서도 높은 평가를 받았다. 2021년 12월 일본의 인기 뷰티 칼럼리스트 야마다 미호코는 주간 아사히

에서 이니스프리 ‘노세범 미네랄 파우더 N’을 추천하며 “메이크업 수정 용으로 이상적”이라며 “세밀하고 매끄러운 마무리를 해주는 추천 상품”이라고 소개했다.

노세범 파우더는 이니스프리가 본격적으로 일본 시장에 진출하기 전 이미 인기 상품 반열에 올랐었다. 일본 온라인 쇼핑몰 ‘이베이 큐텐(eBay Qoo10)’에서 판매량 집계 결과 페이스 파우더 부문 1위를 차지했다. 이에 출시와 함께 폭발적인 인기를 구가했고, 이니스프리는 일본 한정 컬렉션을 출시하며 시장에 호응했다.

노세범 파우더의 폭발적인 인기로 이니스프리는 관련 라인을 크게 늘렸다. 고객들의 요청에 팩트형을 우선 출시했고, 파우더 쿠션과 프라이머, 선크린으로까지 출시했다. 유분기는 잡고 수분감은 더한다는 공통점이 있다. 선크린은 2021년 일본 추천정보 서비스 ‘마이베스트(mybest)’에서 일본 100대 베스트 상품으로까지 선정됐다. 한국 브랜드로는 유일한 쾌거다. 내구성과 발수성, 사용의 용이성, 가격까지 모두 갖췄다는 평가를 받으며 일본내 주요 e커머스에서 판매 되는 선크린 170상품 중 1위를 차지했다.

귀엽고 작은 용기는 켈래버레이션에도 용이해 수많은 브랜드들과 협업되기도 했다. 인기 핫플 카페 노트드, 멘토스, 스티브 헤링턴 등 깜짝 놀랄 다양한 브랜드들이 협업했고 이미지를 살린 케이스로 고객을 사로잡았다.

이니스프리는 지난 11일 인기 캐릭터 스누피가 포함된 ‘피너츠’와의 켈래버 상품 ‘노세범 x 피너츠 에디션’을 선보였다. 스누피, 찰리 브라운, 루시, 라이너스, 샐리 브라운 등 5가지 캐릭터의 유쾌한 순간을 제품 패키지에 담았다. 파우더 퍼프에는 각 캐릭터들의 명대사를 입히고 단 상자 속에 쏘지만 유틸 있는 4컷 만화까지 더했다.

/김서현 기자 seoh@metroseoul.co.kr

바스타비 TV와 함께하는 메트로 뉴스



▲이해인, 피겨세계선수권 ‘쇼트 2위’
…10년만에 메달 눈앞 /사진 뉴시스
▲오연지, 세계여자복싱선수권 동메달
확보

▲정상빈, 유럽 떠나 미국프로축구 미네
소타 유나이티드 입단
▲롯데, ‘미성년자 대상 약취·유인 혐
의’ 투수 서준원 방출



▲런던올림픽 금메달 김재범, 한국마사
회 유도단 신임감독 선임
▲프로농구 KGC, 26일 캡틴데이 및 양
희종 은퇴식 개최 /사진 뉴시스